

문화 서울

2026 06 VOL.232

서울,
예술이 되다

문화서울

◎ SEOUL +	04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12	예술적 도시 읽기 모든 예술은 정치적이다
	26	지금, 서울다움 동네거리에서 만든 관계의 지도 A Map of Relationships Drawn on Neighborhood Streets
◎ FOCUS + 대학로, 큰 즐거움이 있는 곳	56	로컬 리포트 오래된 종로를 오늘의 문화로 번역하다-종로문화재단 김승모 대표이사
	31	시간 대학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이름, 대-락樂로 DaeROCK-Ro: A Name That Reawakens Our Memories of Daehak-Ro
	36	사람 우리 시대 연출가 5인에게 묻는 '연극의 질문들'
◎ ARTS +	46	공간 낯고 작지만, 자꾸 생각나는 곳이 있다-서울형 창작극장 20
	14	인공지능 시대의 장면들 AI 예술, 그 후가 아니라 앞단에서
	20	예술가의 진심 변영진, 열정에서 냉정으로
◎ CULTURE +	48	인사이드 인간다움의 본질로서 예술, 서울문화예술교육 3.0 킷오프 세미나
	52	예술인 아카이브 송창현
	54	예술인 아카이브 임은정
◎ CULTURE +	08	해외는 지금 한불 수교 140주년, 변화한 우리 문화의 위상
	17	이야기를 읽는 경제학의 눈 세대를 건너온 그 사랑의 수익률
	60	페이퍼로그 "데이터에 말을 걸 때" 조소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팀장

2026 서울어텀페스타

SEOUL AUTUMN FESTA 2026

OPEN CALL FOR
OFFICIAL
PROGRAMS

공식 프로그램 공개 모집
5.14.(목) - 6.12.(금)



발행인 송형중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나혜린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번역 evener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표지 사진 Studio Kenn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E. monthly@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인스타그램 @monthly_sfac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6년 6월 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3

SEOUL +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서울무용센터 입주예술가 2026년 상반기 작업공유회

무용 장르 특화 창작공간 서울무용센터는 입주예술가 사업을 통해 예술가의 기획·창작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6월 열리는 작업공유회에서는 상반기 입주예술가 박유하·박소현·윤혜진·임은정 네 사람이 리서치와 창작 작업을 기반으로 한 쇼케이스를 선보인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 서울무용창작센터 | 02.304.0235



댕로마켓

대학로 중심에서 특별한 마켓이 열린다. 대학로를 사랑하는 이들의 애칭 '댕로'를 내건 '댕로마켓'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온갖 재료들을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의 재료'부터 영감을 깨우는 '예술의 재료'까지 마치 보물을 찾듯 곳곳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다양한 셀러가 참여하는 마켓뿐만 아니라, 희곡에 빠져드는 몰입낭독모임, 창작자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 오감으로 즐기는 테이스팅&토크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6월 20일 오후 1시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 02.758.2174



〈야호야호 Echoing Dance〉

금천문화재단은 신경다양성을 겪는 어린이를 위해 참여형 무용공연을 선보인다. 관객은 무대를 자유롭게 누비며 무용수와 함께 춤을 만들어간다. 서로 다른 감각과 움직임이 어우러지며 소리와 빛, 떨림과 멈춤의 시간까지 모든 감각이 춤이 되는 특별한 시간. 릴렉스드 퍼포먼스로 운영돼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공연을 경험할 수 있다.
6월 19일과 20일 | 금천뮤지엄센터 | 070.4172.4084

©R2D2+EDIA / 국립 어린이·청소년 예술원

어린이 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

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욱의 원작 동화를 어린이 뮤지컬로 만든 작품으로, 남들과 조금 다른 외모를 가졌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가는 기린 '지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과 어린이 관객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메시지와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작품. 이번 공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영등포문화재단 누리집(ydp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19일과 20일 | 영등포아트홀 | 02.2629.2250



신당 프로젝트 전시
〈몸에 베인 기억을 묻다〉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작가가 참여하는 기획 전시 '신당 프로젝트 전시SPE' 첫 번째 전시로 김도영·박지은 작가가 협력한 〈몸에 베인 기억을 묻다〉가 진행된다.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SASS갤러리(서울중앙시장 지하) | 02.2232.8831

Work in Progress
작업 진행 중
2026. 05. 30. - 06. 14.

서리플 청년 작가 특별전 〈작업 진행 중〉
서초구와 예술의전당·서초문화재단이 협업해 청년 시각예술가의 창작과 발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시를 열고 있다. 이번에 기획한 〈작업 진행 중〉은 완성작과 창작 과정을 함께 제시해 청년 작가의 현재 진행형 작업을 조망하고, 동시대 창작 흐름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전시다. 김준수·모리(이유진)·설고은·심은지·장임규·전기수·최고래·콜렉티브 비빔 등 8명(팀) 작가가 참여하며,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과 도슨트, 식물 오브제 만들기 워크숍, 큐레이터 토크 등이 마련된다.
6월 14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 02.3477.2074



3

SEOUL +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앨리스 마스터드 <연일 속으로> ©MVA / Alamy Stock Photo

내셔널지오그래픽 특별 기획전 <오션>

중구문화재단과 YBM퍼블위즈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이 기록한 현실 바다와 디즈니의 감성 스토리를 결합한 내셔널지오그래픽 특별 기획전 <오션OCEAN>을 충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여 점 사진과 탐사 영상에 디즈니 캐릭터가 전하는 바다와 생명의 이야기가 어우러지고, XR 체험과 청음 공간이 마련돼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즐길 수 있다.
6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 02.2230.6600

성동 필름 페스타-세계 영화 상영회

스페인·인도·이탈리아 등 주한 해외문화원과 협력해 각국의 우수 영화를 선보이는 세계 영화 상영회가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성수아트홀과 소월아트홀에서 열리고 있다. 6월 17일에는 성수아트홀에서 헝가리 영화 <콘스탄티노플에서 온 여인>을 선보인다. 상영 이후 시네 토크도 진행될 예정.
6월 17일 오후 7시 | 성수아트홀
02.2204.7526



후안 그라스 <아침 식사>, 1915, 캔버스에 목탄, 유채, 92 X 73cm, Collection Centre Pompidou, Paris ©Centre Pompidou, MNAM-CCJ/Philippe Mège/Dist. Grand Palais Rm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한화문화재단과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파트너십으로 설립된 퐁피두센터 한화가 6월 4일 여의도 63빌딩에 개관한다. 개관전으로 20세기 미술의 전환점을 이룬 큐비즘(입체주의)에 주목해, 피카소·브라크·레제 등 큐비즘 대표 작가를 포함한 40여 명의 작품 90여 점을 8개 섹션으로 나눠 선보인다. 특히 한국에 소개된 적 없는, 피카소가 직접 제작한 발레 <메르퀴르> 무대막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외에 추가로 편성된 마지막 섹션 '코리아 포커스: 모던 아방가르드를 향한 꿈의 지도'에서는 파리를 보편적 '모던'의 기준이자 예술적 이상향으로 상상한 1920~30년대 경성의 실험적인 근대 예술을 재조명한다.
6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 퐁피두센터 한화 | 02.789.5550



한불 수교 140주년, 변화한 우리 문화의 위상

전윤혜 음악평론가

올해 한국을 가장 주목하는 나라는 단연 프랑스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연극제로 꼽히는 아비뇽 페스티벌(7월 4~25일)이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한국어'를 선정했고, 칸 영화제(5월 12~23일)의 심사위원장으로 박찬욱 감독이 임명됐다. 유럽 박물관의 밤(5월 23일)에는 여러 미술관에 한국 관련 퍼포먼스가 올려졌다. 이 외에도 오페라극장과 미술관에서의 행사 등 한국 주간이 마련된다. 올해 들어 한꺼번에 들려오는 기쁜 소식은 올해가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해라는 양국의 문화 여젠다가 맞물려 가능했다.

제79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찬욱 ©FilmAwards.TV

칸의 제도권으로 들어간 한국 영화계

박찬욱 감독의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임명은 상징적이다. 영화제의 긴 역사 속에 아시아인 심사위원장은 지금까지 단 두 명—1962년 일본 후루카키 데쓰로(Tetsuro Furukaki), 2006년 홍콩 왕자웨이(王家衛)—뿐이었다. 그리고 20년 만에, 박찬욱 감독이 그 세 번째 자리에 오르게 됐다. 5월 12일 열린 개막식은 감동적이었다. 개막식 사상 최초로 한국어가 스피치 언어로 등장한 것이다. 박찬욱 감독은 심사위원을 대표해 선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쟁 부문에 오른 작품의 수는 22편에 불과하지만, 이 영화

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합하면 아마 몇천 명은 될 겁니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의 가족까지 합하면 몇만 명도 되겠죠. 그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갈망을 명심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중 카메라는 객석의 봉준호 감독을 비쳤다. 생중계 중 두 감독이 번갈아 잡히는 모습에서, 2019년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계가 괄목할 만한 명성을 얻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 장편 경쟁 부문에는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올랐다. 이 부문에 한국 영화가 진입한 것은 2022년 <헤어질 결심>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엔 CJ ENM이 투자한 <브로커> 역시 경쟁 부문에 오르고, 이정재가 <헌트>로 감독 데뷔를 하는 등 한국 영화를 둘러싼 궁금증이 정점을 찍을 때였다. 이후 한국관조차 마련되지 않은 조용한 시기를 지나, 올해 다시 활기를 얻었다. 17일 최초 상영한 <호프>는 경쟁 부문에 웃음과 속도감을 부여했다는 현지 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감독 주간에 정주리 감독의 신작 <도라>, 이머시브 경쟁에 우박 스튜디오의 <부우우-피이>, 비경쟁 부문에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초청됐다.

지난 몇 년을 지켜본 결과, 올해야말로 한국 영화가 칸의 제도권에 안착한 해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지금껏 한국 영화는 초청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마케팅 역시 한국 영화계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한국 영화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잡았다. 이번 심사위원장 임명도 외국 감독의 예외적인 선발 이라기보다 자격을 갖춘 감독이 칸의 깊숙한 내부로 들어간다는 느낌에 가깝다. 박찬욱 감독은 17일, 칸 현지에서 프랑스 문화예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를 수훈했다. 한국인으로서 네 번째다.

아시아 언어 최초 한국어를 초청한 아비뇽 페스티벌

아비뇽 페스티벌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 중 하나다. 80주년을 맞은 올해는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축제 축이 올해 공식 초청 언어langue invitée로 한국어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아비뇽의 '초청 언어'는 2023년 시작된 제도로, 공식 작품의 일부를 해당 언어 작품에 할애하고 관련된 행사를 기획한다. 올해 공식 작품 47편 중

9편이 한국 작품이다. 프로그램은 아비뇽 페스티벌과 예술경영지원센터·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예술감독 티아고 로드리게스(Tiago Rodrigues)는 한국어를 “하나의 역사와 지역에 깊이 뿌리내린 언어”라고 설명하며, 한글이 지닌 문화적 상징성과 비서구적 현대성에 주목했다. 한국어는 앞서 초청된 영어나 스페인어처럼 제국적으로 확장해 거대 언어권을 형성한 언어가 아니다. 문해력을 높이려는 세종의 의지, 곧 지식의 민주화를 위해 탄생했다. 아비뇽은 이 점을 높이 산다. 올해 관객은 한국 작품을 번역 버전으로 접하는 한계를 넘어, 무대 위 직접 발화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바탕으로 한 낭독 공연 〈새 Oiseau〉(7월 15~16일)는 배우 이해영과 이자벨 위페르가 함께 무대에 올라 각자의 언어로 작품을 낭독할 예정이다.

올해 한국 작품은 기후위기, 사회적 고립, 젠더, 집단성 같은 주제를 다루며 기존에 알려진 대중문화적 이미지 너머의 한국을 조명한다. 탈서구와 비영어권 창작에 관심이 많은 현 유럽 예술계에 한국 공연예술의 동시대적 가능성을 보일 기회다.

한국 전통을 수놓은 박물관·미술관·공연장

‘유럽 박물관의 밤’은 매년 5월, 유럽 내 수천 개 박물관·미술관이 밤까지 문을 열고 대중 행사를 여는 날이다. 파리 근대미술관 Musée d'Art Moderne de Paris은 안은미의 〈백만 Nuit Blanche des Fauves – Nuit de Baekman (白蠻)〉을 올린다. 일제 강점기 다섯 한국 화가가 결성한 ‘백만양화회’에서 영감을 얻었다. 공연은 서구 모더니즘을 사유하던 근대기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오늘로 불러와 서구 미술사의 중심에서 다시 사유하는 상징적 제스처를 지닌다. 파리 빅토르 위고의 집 Maisons Victor Hugo에서는 입과손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이 오른다. ‘세상은 한 척의 배’라는 설정 안에서, 총 세 편의 토막소리(원작의 팡틴·마리우스·가브루슈 세 인물의 삶)를 엮었다. 작품은 전통 판소리 완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착안해, 여러 작은 이야기가 하나의 긴 서사가 되는 과정을



↑ 구자하 연출 〈하리보김치〉 ©Bea Borgers
→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열린 2025년 아비뇽 페스티벌 풍경 ©Christophe Raynaud de Lage/Festival d'Avignon

보여준다. 원작이 품은 인간 구원과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질문을 동시대적으로 재조명하며, 한국의 구전 전통과 프랑스의 문학을 잇는다. 더욱이 원작자 위고의 집에서 열리는 공연이라 더욱 의미 있다. 이 행사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파리지 박물관 연합 Paris Musées이 협력한 ‘포커스 코레 Focus Corée’의 일환이다. 5월 30일 몽펠리에 오페라극장에는 프랑스 국립 오페라극장 최초로 판소리 공연이 오른다. 〈불과 눈물〉은 소리꾼 고영열이 ‘춘향가’의 대목을 뽑아 재해석한 피아노 병창이다. 전통적인 판소리는 아니지만 긴 시간 공연되는 독창 서사가 생소한 오페라 관객에게 좀 더 친밀하게 소개될 기회다. 비유럽 레퍼토리를 늘리고자 하는 극장의 수요와 한불 수교 140주년의 의미가 맞아떨어지며 성사됐다. 몽펠리에 오페라 측은 〈불과 눈물〉을 두고 “과거와 현재,



한국과 세계를 연결한다”고 소개한다. 고영열은 “병창 피아노를 단순히 전통과 현대의 형식적 융합으로 보지 않고, 전통이 오늘날의 감성 속에서 어떻게 숨 쉬고 새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판소리의 서사, 호흡, 시김새 및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피아노의 화성과 음색을 활용해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적인 언어를 통해 전통의 깊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현대적인 창작 과정”이라고 오페라극장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언어와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호흡과 에너지, 몸짓, 그리고 음악적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는 감정의 진실은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 공연예술계의 약진은 단순한 한류 열풍의 결과만이 아니다. 대중문화가 시장을 열었다면, 그것이 상업과 예술을 넘나드는 영화 산업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높아진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이제 공연예술계까지 온

- 2026년 아비뇽 무대에 오르는 공식 초청 언어(한국어) 작품**
- Island Story(섬 이야기) | 이경성**
섬이라는 공간을 통해 공동체와 기억, 전통적 삶의 감각을 다루는 작품. 한국적 지역성과 동시대성을 결합한 공연
- MULJIL(물질) | 이진엽**
제주 해녀 문화를 모티프로 한 작품으로, 물과 신체를 통해 노동·생존·여성성을 탐구
- 1 Degree Celsius(1도씨) | 허성임**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현대무용으로, 인간의 움직임과 환경 변화의 관계를 탐구
- The History of Korean Western Theatre(한국 연극의 역사) | 구자하**
한국 근현대 연극사를 통해 식민성, 서구화, 문화 번역의 문제를 탐구하는 메타시어터 형식의 작품
- Haribo Kimchi(하리보 김치) | 구자하**
음식과 이주, 문화 혼종성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한국성과 유럽 경험을 독특하게 교차한 것이 특징
- Cuckoo(쿠쿠) | 구자하**
전기밥솥과의 대화를 통해 IMF 이후 한국 사회와 청년 세대의 고립감을 다룬 멀티미디어 연극
- KIN: Yeonhee Project I(긴: 연희해체프로젝트 I) | 리퀴드사운드**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퍼포먼스. 타악과 움직임, 의례적 감각이 결합된 무대가 특징
- Oiseau(새) | 쥘리 들리크**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텍스트로 삼은 특별 낭독 공연
- Neige, neige, neige(눈, 눈, 눈) | 이자람**
톨스토이 ‘주인과 하인’을 재해석한 현대 판소리
- Che dolore terribile è l'amore(끔찍한 고통 그리고 사랑) | 다리야 드폴로리안**
‘작별하지 않는다’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연출가가 작업한 무대

것이다. 칸 영화제에 한국 영화를 알린 작품은 〈서편제〉와 〈취화선〉이었지만, 이제 현지는 나홍진의 SF 영화에 열광한다. 한불 수교 130주년 당시 중요제례악과 창극 등으로 ‘한국의 미’를 알리려 힘쓴 공연예술계는, 이제는 우리의 관점으로 만든 현대 작품을 우선한다. 한국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대도시 사회를 배경으로 한 빠른 유행 소비 등을 거치며 쌓은, 민첩하고 혼란된 감각이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잘 소비하지 않는 전통 콘텐츠를 ‘해외 공연이기 때문에’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은 덜 때다. 우리가 실제로 창작·소비하는 작품을 자연스럽게 내보낼 때 이곳은 열광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난 10년의 노력 끝에 우리가 얻은 결실 아닐까.

모든 예술은 정치적이다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지난 4월 30일 '얼굴 없는 예술가'로 유명한 영국의 뱅크시Banksy가 런던 도심 한복판에 동상 하나를 세워서 큰 화제가 됐다.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깃발을 들고 행진 하듯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의 이 동상은 조금만 자세히 보면 풍자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들고 있는 깃발이 바람에 날려 남성의 얼굴을 가렸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에서 행진하느라 한 발이 받침대를 벗어나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자신을 '예술 테러리스트'라고 소개하는 뱅크시는 도시 곳곳에 허가받지 않고 그래피티 작품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간혹 조각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강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와 '낙서'라는 장르 특성상 법에 저촉될 위험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작업하지만, 그는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예술가가 됐다.

이번 작품은 '깃발'로 상징되는 국가주의와 이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재치 있는 묘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설치된 장소가 워털루 플레이스(Waterloo Place)이기 때문이다. 워털루 플레이스는 1815년 워털루 전투의 승리를 기념

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나폴레옹 전쟁의 종식과 대영제국의 부상을 상징하는 장소이고, 화이트홀(정부 청사 거리)과 버킹엄 궁전 사이에 있다. 왕립지리학회 같은 유서 깊은 기관과도 인접해 있다. 한마디로 영국의 '체제'를 대변하는 곳이다. 바로 그곳에 '깃발'의 위협을 경고하는 동상을 세운 것이다.

모든 예술은 정치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태도다. 하지만 동상은 언제나 그 위치 자체가 정치적 논란의 중요한 이유가 돼왔다. 뱅크시가 세운 동상에서 멀지 않은 트래펄가 광장 앞에는 찰스 1세 기마상이 높은 받침대 위에 세워져 있다. 프랑스 조각가 위베르 르 쉬외르가 1633년경 제작한 이 동상은 영국 공공장소에 세워진 가장 오래된 청동 기마상이다. 그런데 이 동상이 현재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찰스 1세는 1649년 잉글랜드 내전(청교도 혁명)에서 의회파에 패배한 뒤, 국왕으로서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돼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화이트홀 거리에 있는 뱅퀀팅 하우스 앞에서 처형됐다. 왕을 없앤 의회는 찰스 1세의 동상을 부수라고 명령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금속 세공인은 이 동상을 자기 집 마당 아래 몰래 파묻고는 모두 녹여 칼과 못으로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1660년 영국에서는 왕정이 복고됐고,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걸 본 금속 세공인은 찰스 1세의 기마상을 다시 파내 왕궁에 팔았고, 찰스 2세는 애초 왕궁 정원에 세우려고 제작한 이 동상을 트래펄가 광장 앞 현재의 위치에 높이 세웠다. 아버지가 처형당한 뱅퀀팅 하우스를 내려다보게 함으로써 '국왕이 야말로 국가의 중심이자 근간'임을 알린 것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상징과도 같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역시 광장과 복잡한 사연이 있다. 다비드상은 처음에는 성당의 높은 지붕 위에 세우기 위해 제작된 작품이다. (이 조각상의 손과 발의 비율이 비정상적인 이유도 멀리서 보는 것을 고려해 디자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완성된 작품을 보니 잘 보이지 않는 성당 지붕 위에 놓기에는 너무 아까웠고, 피렌체 시민은 장소 선정 위원회까지 만들어 논의한 끝에 결국 다비드상을 피렌체 정치의 중심지인 시뇨리아 광장(베키오 궁전 앞)에 세우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조각상을 광장에 놓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다. 당시 피렌체 시민은 독재를 휘두르던 메디치가를 쫓아내고 공화국을 세운 상태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비드(다윗)는 바로 '폭군(메디치)을 몰아낸 자유로운 피렌체 시민'을 상징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즉, 다비드상이 광장에 놓인 것은 사실 메디치가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였던 것이다.

특히 다비드의 눈은 로마 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메디치가가 망명해 있던 방향이자 그들을 후원하던 세력을 노려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메디치를 지지하던 세력은 이런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에 크게 반발했고, 밤에 몰래 다비드상에 돌을 던져 훼손을 시도하기도 했다.

나중에 메디치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았을 때 다비드상을 당장 치워버리고 싶어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다비드상이 이미 피렌체의 상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메디치가는 다비드상을 없애는 대신, 그 옆에 '헤라클레스와 카쿠스'라는 거대한 조각상을 세우는 쪽을 선택한다. '진짜 힘은 다비드 같은 피가 아니라 헤라클레스 같은 압도적인 무력(메디치 가문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결국 광장의 동상은 단순히 돌과 청동으로 만든 장식물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누가 이 도시의 주인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시민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조용히 가르치는 일종의 방향 표지판에 가깝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동상이 끌어내려지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새로운 동상이 세워진다. 뱅크시는 이런 전통과 광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어쩌면 현대의 정치란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혹은 우리가 항상 들여다보는 휴대전화 화면—을 선점하는 일에 가까워졌는지도 모른다.

한 예술가가 로봇 팔과 마주 앉아 그림을 그린다. 작가의 손이 종이 위에 선을 긋자, 로봇 팔이 그 움직임을 읽고 자신의 선으로 응답한다. 기계는 인간 예술가의 제스처를 모방하되 변주를 만들고, 다시 맞춰가며 함께 그림을 그린다. 작가 수그웬 정 Sougwen Chung의 <Drawing Operations>는 인공지능^{AI} 시대 예술의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장면을 볼 때 떠오르는 개념이 바로 비르투오시티^{virtuosity}, 즉 예술가의 탁월한 기교와 숙련이다. 오랫동안 예술에서 비르투오시티는 인간의 손, 몸, 감각이 축적한 능력으로 이해됐다. 피아니스트의 타건, 화가의 붓질, 무용수의 움직임, 조각가의 손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가가 세계를 통과해온 시간의 증거였다. 그러나 수그웬 정은 작품을 보고 있다면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듯하다. 로봇의 움직임이 인간의 손짓을 모방하면서도 어긋나며 다시 조율되는 순간, 로봇 팔이 종이 위에 붓을 터치하는 순간 예술의 기교란 무엇인지 쉽게 말하기 어려워진다.

AI와 로봇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수십 년의 숙련이 필요한 이미지를 몇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기교의 가치는 사라지는가. 로봇 팔이 인간 예술가와 함께 그림을 그릴 때, 비르투오시티는 누구의 것인가. 이제 'AI가

예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 예술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금 인간의 예술이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하는가다.

AI는 예술의 제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오랜 훈련을 거쳐야만 시각화할 수 있던 이미지를 이제는 누구나 문장만으로 불러낼 수 있다. 창작의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표현의 속도는 빨라졌으며, 예술은 더 많은 사람에게 열리고 있다. 창작은 더 이상 소수 전문가에게만 허락된 영역이 아니다. 특히 결과물 차원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공개된 ChatGPT의 이미지 2.0은 AI 이미지 특유의 '불쾌한 골짜기'마저 빠르게 줄여가고 있고, 과거에는 전문 작가나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야 했던 시각적 상상을 이제는 누구나 직접 실험할 수 있다.

AI 예술, 그 후가 아니라 앞단에서

음성원 OpenAI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

그러나 예술의 민주화가 곧바로 예술 소비의 부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예술이 넘쳐날수록 그것은 더 빨리 소비되고 잊힌다. 아름다운 이미지는 많아지지만, 오래 살아 남는 이미지는 드물다. 그렇다면 어떤 예술이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이 AI 시대 예술가와 예술계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나는 예술가의 역할은 더 멋진 결과물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 속 의미를 조직하는 쪽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예술을 이해할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은 작품의 마지막 장면만 보는 것이다. 그러나 AI 예술의 진짜 변화는 그 결과물을 가능하게 한 조건에서 일어난다. 어떤 AI 모델은 왜 썼는가, 그 모델은 어떤 데이터의 영향을 받았는가, 프롬프트는 어떤 의도로 설계됐는가, 모델 속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비인간 행위자들의 구성 조건은 AI 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 예술은 이제 한 명의 작가나 하나의 기술이 만든 결과라기보다, 여러 조건이 얽혀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적 산물에 가까워지고 있다.

AI가 만들거나 AI와 함께 만든 결과물은 그 자체로 곧바로 '작품'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특정한 기술 환경에서 생성되고, 인간의 선택과 편집을 거치며, 플랫폼의 규칙 안에서 유통되고, 법·제도적 판단을 통해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고, 시장과 문화기관의 해석을 통해 가치를 얻게 된다. 이 서사와 맥락이 곧 예술성과 연결된다.

따라서 AI가 약화하는 것은 비르투오시티 자체가 아니라, 비르투오시티를 이해하는 기존 방식일 수도 있다. AI 시대의 비르투오시티는 '잘 그리는 능력'에서 '잘 발견하는 능력'으로 이동한다. 예술가의 탁월함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구현하는 데만 있지 않다. 어떤 장면을 상상할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스타일을 거부할 것인가, 수많은 결과물 중 무엇을 남기고 버릴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관객에게 어떤 감각과 질문을 전달할 것인가가 새로운 숙련의 영역이 된다.

이는 기교의 몰락이 아니라 기교의 재배치다. 과거의 예술가가 붓과 악기와 몸을 다루는 사람이었다면, AI 시대의 예술가는 이미지의 가능성, 알고리즘의 편향, 관객의 해석, 사회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된다. 프롬프트를 잘 쓰는 능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 이후의 판단이다. AI가 만들어낸 수많은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눈, 그 이미지가 왜 지금 필요한지 설명하는 언어, 기술의 매혹을 인간의 경험으로 되돌려놓는 감각이야말로 새로운 타입의 비르투오시티다.

이 변화는 문화예술경영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전환을 만들어낸다. 전통적인 문화예술경영은 완성된 작품을 어떻게 전시하고 유통하고 홍보할 것인지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AI 예술에서는 더 앞단의 질문이 중요해진다. 작품이 완성된 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창작을 가능하게 했고, 그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AI 예술 전시를 기획한다면, 단순히 'AI로 만든 작품을 보여준다'는 수준에 머물 수 없다.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어떤 데이터와 스타일을 참조할지, 작가의 프롬프트와 수정 과정을 어떻게 기록할지, AI가 만든 부분과 인간이 선택·편집한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지, 결과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아카이빙할 때 어떤 설명을 붙일지까지 설계해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일이 예술경영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제 예술경영자는 결과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작 조건을 설계하는 사람이 된다. 어떤 기술을 쓸 것인가,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 어떤 법·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어떤 시장·기관의 해석을 붙일 것인가가 모두 경영의 일부가 된다.
과정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은 관리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창작자의 의도와 데이터, 작업의 흔적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관한 책임도 커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AI 시대의 예술가는 새로운 도구를 다루는 사람인 동시에, 그 도구가 어떤 기반 위에서 있는지 묻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대를 건너온 그 사랑의 수익률

조원경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기에 미로를 걷는 것 같고, 때로는 한정된 보물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처음'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한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강력한 '각인 효과(Imprinting Effect)'를 지닌다. 이뤄지지 못한 첫사랑이 유독 시리지 않은 기억으로 남는 이유는, 그것이 완성되지 못한 채 우리 내면에 영원한 '미실현 가치'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현실이라는 시장에 상장돼 가격이 매겨지거나 퇴색될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그 기억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우량주보다 찬란한 고점의 상태로 우리 가슴속에 박제된 셈이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와 영화 <클래식>을 관통하는 서사는 '대를 이은 사랑'이다. 한 세대에서 못다 핀 꽃이 다음 세대에서 결실을 보는 과정은 경제학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 축적)' 이론과 닮았다. 흔히 세계적인 예술가가 탄생하기 위해선 3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1세대는 자본을 축적하는 '부의 형성'에 집중하고, 2세대는 그 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적 결핍 없이 교육받으며 문화적 소양을 닦는다. 그리고 3세대에 이르러서야 부모의 전폭적인 후원과 환경적 자극 속에서 비로소 세계적인 천재성이 꽃을 피운다. IT 업계의 거물 빌 게이츠 역시 마찬가지다. 변호사 아버지와 교육가 어머니라는 훌륭한 환경적 자산은 그가 창업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게 한 든든한 보험이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자본의 토대, 즉 인적 자본의 연대다. 상속세 고지서에는 찍히지 않지만, 세대를 거치며 축적된 지적 유산과 정서적 회

복 탄력성이야말로 자녀가 거친 시장의 풍랑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안전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를 잇는 사랑과 인적 자본의 연대

영화 <클래식>에서 엄마의 첫사랑은 친구의 연애편지를 대필하며 시작된다.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는 절절한 고백은 친구의 이름으로 전달되지만, 그 문장을 빚어낸 진심의 주인은 따로 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일종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이자 ‘브랜드 네이밍’의 오류다. 실제 가치를 생산한 공급자(첫사랑)가 자신의 브랜드가 아닌, 시장에서 더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대리인(친구)의 브랜드를 빌려 고객(엄마)에게 접근한 셈이다. 정략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와 신분 차이라는 진입 장벽 앞에서, 첫사랑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는 선택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은 가혹했다. 엄마는 편지에 담긴 문장의 가치에 반했지만, 정작 그 가치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에 엉뚱한 사람과 인연을 맺을 뻔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위기에 처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브랜드는 신뢰를 담보하지만, 때로는 그 브랜드 뒤에 숨겨진 진짜 실력자를 보이지 않게 하는 가림막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진심이라는 무형 자산은 결국 시장의 왜곡을 뚫고 나오기 마련이다. 아무리 타인의 이름을 빌려도 그 속에 녹아든 독창적인 온기는 결국 수신자의 가슴에 정확히 도달해 ‘진짜 주인’의 가치를 증명해내기 때문이다.

엄마와 첫사랑의 만남을 아프게 정리한 것은 ‘소나기’였다. 황순원의 소설 속 소년과 소녀처럼, 예기치 못한 비는 나룻배를 떠내려가게 하고 두 사람의 귀가를 늦춘다. 경제학적으로 소나기는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충격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이 충격은 결국 인연의 단절이라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시력, 정략결혼으로 엇갈린 운명은 개인이 회피할 수 없던 시대적 리스크였다. 첫사랑은 시각 장애를 숨기고 엄마를 만나 “너 하나도 안 변했어”라며 거짓 연기를 한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정상인처럼 행동하기 위해 전날 미리 동선을 파악한 그의 눈물겨운 노력은, 사랑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는 ‘이타적 선택’의 정점이다. 이는 이기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의 가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때로는 타인의 행복이라는 효용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전체 자산을 기꺼이 소멸시키는 희생의 경제학이 인간사를 얼마나 숭고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가치 있는 투자

하지만 비극으로 끝난 부모 세대의 사랑은 자식 세대에서 과거의 관성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과거의 결정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라 부르지만, <클래식>의 딸은 이 경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뒤바꾼다. 딸이 우연히 열어본 엄마의 비밀 상자는 과거의 슬픔을 현재의 축복으로 치환하는 매개체가 된다. 엄마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이 바로 딸이 지금 사랑하는 선배라는 사실은, 부모 세대가 흘린 눈물이 자식 세대에서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티셔츠 한 장을 우산 삼아 빗속을 달리는 딸과 선배의 모습은, 부모 세대가 소나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단절의 역사를 치유하는 장면이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들에게 정서적 자산이 돼 그들의 결합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빌 게이츠가 부모로부터 기부의 정신을 배워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듯, 사랑 역시 대를 이어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승된다.

그리움이 깊을수록 새벽은 쉽게 오고, 진심은 결국 운명의 물줄기를 돌려놓는다. 사랑 앞에 용감하라. 소나기가 온들, 찬바람이 분들 무엇이 두렵겠는가. 경제적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부모의 희생과 사랑은 자식 세대에서 비로소 완성된 가치로 평가 받는다. 티셔츠 하나로 비를 가린 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증명되는 가장 안전자산 같은 행복일 것이다. 부모의 사연이 자식의 축복으로 승화되는 그 찬란한 순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배운다. 비록 세대를 건너온 그 사랑의 수익률은 눈에 보이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으나, 훗날 자식들이 맞이할 삶의 비바람을 막아줄 가장 견고하고도 따뜻한 인생의 포트폴리오가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A

ARTS +
예술가의 진심

변영진, 열정에서 냉정으로

이태훈 조선일보기자 | 사진 Studio Kenn



늘 뜨거웠다. 필필 끓는다고들 했다. 무대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배우들의 폭발적인 신체 에너지, 객석 밑바닥부터 관객을 흔들어 깨우는 타악기 소리, 강렬한 감정의 격동... 제46회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 <장소>(작 김철의)는 극단 '불의전차'와 변영진 연출 작품의 개성을 고스란히, 알뜰하게 무대 위에 분출시켰다. 우수상·연출상과 함께 배우 전원이 연기상을 받으며 지난해 서울연극제 3관왕이 된 데 이어, 올해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도 받으며 기세를 이어갔다.

그런데 최근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서 마주 앉은 변영진은 "밀린 방학 숙제를 한꺼번에 해치운 느낌"이라며 "이제 필쩍필쩍 뛰어다니는 건 좀 자중하고, 뭔가

제62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을 받은
극단 불의전차 <장소>

새로운 걸 하고 싶다"고 했다.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는 건 할 만큼 다 한 것 같아요, 진짜. 고선웅 연출님이 '뜨거울 때 내놓지 말고 차가울 때 내놓으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6월 23일 개막하는 연극 <브로크백 마운틴> 연습 중인데, 그 말씀이 요즘 제 모토예요, 하하."

<이카이노 바이크>, <청천장단>을 거쳐 <장소>로 제일동포 작가 김철의 작품 '자이니치' 3부작'의 매듭을 짓는 동안, 자이니치 연극 특유의 끊어넘칠 듯한 열기가 극단의 색깔이 됐다. 그런데 "이제 좀 건조하고 차가운 작품을 하겠다"니. 어쩌면 이런 생각에 도달하기까지, 변영진 연출이 걸어온 연극의 여정에 그 답이 있다.

연극반 중학생에게 각인된 '청춘예찬'

첫 연극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서울 수색의 옛 동네에서 태어나 김포에서 자랐다. 북한이 보이는 애기봉 근처 중·고교를 나왔는데, 학창 시절은 온통 연극뿐이었다. 중학교 1~2학년쯤 연극반 선생님이 단체 관람으로 박해일·고수희 배우가 나온 박근형 연출의 <청춘예찬>을 보여주셨다. 눈앞에서 담배를 막 피우고, 고수희 배우님이...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잔상이 오래 남았다.

중학생이 연극반이라니.

인생의 좌표를 바꾸는 계기는 늘 단순하게 찾아오는 것 같다. 강해지고 싶어 유도부에 들어갔다가 훈련이 고된 탓에 탈출한 뒤 친구 따라 연극반에 갔다. 선생님이 연극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어서, 방학마다 꼭 한 작품 이상 올렸다. 당연하듯 그냥 연극을 했다.

연극이 좋던가.

연출하면서 연극이 좋아졌다. 축구 선수 꿈꾸는 애들이 축구 힘들어 하듯이, 연기하던 어릴 때는 맨날 힘들었다. 그런데 가족이 적극적으로 밀어줬다. 보조개 많이 들어간, 까불까불 귀여운 깡마른 소년이 공부엔 답이 없지만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노는 게 부모님 보시기에 좋았나보다.

자식이 연극 하겠다면 주저않혀 공부시키려 할 텐데, 부모님이 대단하시다.

열린 분들이셨다.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아파서 연극 연습 쉬겠다고 피부리면 아버지께 크게 혼이 났다. 고등학교 때 연극반을 만들었고, 동량·동국 등 청소년 연극제에서 연기상을 연이어 받았다. 동국대학교 교수님이 '변영진 학생, 대학 진학할 거죠?' 하고 전화 주신 기억이 난다. 그런데 동국대 입시에서 탈락 떨어졌다.

아니, 왜?

연기 교습 선생님이 '너는 잘하는 아이니까 개성을 과시하라'고 했다.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하고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하고, 상장과 연기 포트폴리오를 한아름 들고 면접에 갔다. <세 자매>의 가난한 남자 '안드레이'를 연기했더니, 안경 쓴 백발의 교수님이 물으셨다. '자네 머리는 왜 염색했나?' 솔직하게 '멋있어 보이려고 했다'고 답했더니 교수님이 그러셨다. '오늘이 자네 인생에 가장 크게 실수한 날 중 하

나일 거네.' 동국대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떨어졌다. 재수할 땐 완전 학생답게 하고 갔다, 하하. 서울예대 연기과에 들어갔다.

오택석 '목화'와 정의신 '신주쿠양산박'

본격적으로 연극 공부기 시작됐다.

박서준·박진주 배우가 동기다. 김선호 선배와 함께 활동한 동아리 '극예술연구회'가 정말 끈끈했다. 제가 크게 영향받은 극단이 둘 있다. 하나는 서울예대 교수이시던 스승 오택석 선생님의 '목화'였다. 선생님께 연극 그 자체, 연극의 모든 걸 배웠다. 관객을 대하는 태도, 연극이 가져야 하는 덕목, 기술이 아니라 기본 정신에 대해 전부 배운 것 같다.

영향받은 또 하나의 극단은?

오 선생님을 뵈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밀양연극촌 워크숍을 갔다. 거기서 제일동포 정의신 작가와 김수진 연출의 극단 '신주쿠양산박'의 작품 <바람의 아들>을 봤다.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차원이 달랐다. 몽클하고 찬란했다. 실존하는 지브리 만화를 보는 것 같았다. 전율이 일었고, 그런 연극을 하고 싶었다. 신주쿠양산박이 내 인생을 휘어잡았다.

목화와 신주쿠양산박이라니.

오택석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지만, 흠치고 싶었다. 선생님 모습을 30퍼센트만 가질 수 있어도 연극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도서관에서 신주쿠양산박 정의신 작가의 텍스트를 다 읽고, VOD로 극단의 옛날 연극을 다 봤다. নিজ가 스승의 기술을 통째로 훑듯 다 훑으려 했다. 대본은 필사하고, 영상을 보며 연출 디렉션을 다 적었다. 비주얼 디자인도 그렸다. 내가 한 연출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베꼈다.

자이니치 연극에 대한 애착이 거기서 시작됐나보다.

사실 잘 몰랐다. 자이니치의 정신과 역사가 연극과 같이 간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다. 일본 연극은 원래 시끄러운 건 줄 알았다. 자이니치 정신, 조선인의 피 때문에 연극이 그렇게 시끄럽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하하. 2013년쯤 차승원·초난강(쿠사나기 츠요시)·히로스에 료코가 출연한 정의신 선생의 연극 <나에게 불의 전차를>을 봤다. 대학을 졸업하며 2015년 대학 친구들과 극단을 만들며 이름을 '불의전차'로 지었다.



“닌자가 스승의 기술을 통째로 훔치듯”

돈 받고 표를 판 첫 연출작은.

2015년 여름, 대학로 70~80석짜리 소극장에서 직접 쓴 SF 연극 〈행성의 진화 초기 단계, 불확실한 미래〉를 2주쯤 공연했다. 별자리 동호회 아이들이 UFO를 발견하고 국정원과 격돌하고 미래 인간도 막 나온다. 그 장르를 처음에 해서 정말 다행이다 싶다, 하하.

신주쿠양산박의 연극에서 이름을 탄 극단의 첫 작품이 SF라니.

신주쿠양산박에서 다 가져왔다는 걸 숨기고,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어린 마음이었다. 그런 치기 어린 자격지심과 자존심이 먼저 부딪치고 깨져야 했다. 배우들이 연습 중에 계속 지적해줬다.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너무 신주쿠양산박 흥내 내는 거 아냐?’, ‘이 장면은 결판(오)세혁 형이 했던 거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해야 하는 게 뭘까. 그 질문에 도달하는 데 3년 정도 걸렸다.

그 깨달음 이후 불의전차만의 독창적 색깔을 낸 첫 작품이 〈펜스 너머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해〉였다.

그전에 남산예술센터에서 열린 서바이벌 다큐 연극 〈창조경제-공공극장편〉²⁰¹⁷ 경연이 발판이 됐다. 상금도 상금이지만, 10분짜리 작품 세 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 것’을 많이 찾아냈다. 좋아해서 훔치고 싶던 것들을 훔쳐 그대로 적용하던 단계에서, 짝아내고 다시 구성하고 맞춰 나만의 것으로 탈바꿈시켜 내놓는 걸 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렇게 만든 〈펜스 너머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해〉 고양 공연이 ‘2023 올해의 공연 베스트 7’에 선정되며 처음 인정받았다.

그리고 2년 뒤에 서울연극제 3관왕이 됐다. 성장 속도가 엄청나다.

오세혁 형이 정말 내 인생의 귀인이다. 이 작품이 끝날 때쯤 제일동포 극작가 김철의 형을 소개해 줬다. ‘오사카에 제일 조선인 김철의 작가가 있는데 너랑 똑같다’고 했다. 오프닝에서 지하철 손잡이를 흔들면서 일본 남자를 때리는 게 첫 장면인 연극 〈장소〉 얘기를 듣고 영화 〈박치기〉를 떠올렸다. 세혁 형이 “우와, 김철의가 박치기에도 나왔어!” 했다.

변영진과 김철의가 드디어 이어졌다.

〈장소〉는 스케일이 너무 커서 지원금 없이는 하기 힘든 작품이었다. 그래서 〈이카이노 바이크〉를 먼저 했다. 내가 배우고 훔친 걸, 습득하



고 체득한 걸 다 풀어내면 됐다. 무국적 조선인이 내뿜는 텍스트의 리듬과 템포가 마치 내가 쓴 것처럼 몸에 착착 감겼다. 자이니치의 피, 조선 사람의 피가 내게도 있다는 걸 느꼈다. 김수철 작곡가를 정말 좋아하는데, 김철의 형의 희곡을 읽으면 내 안에서 김수철의 팽과리가 계속 징징 울린다. 배우들을 못 살게 굴었다. ‘뛰어나와!’ ‘점프해!’ 하하하. 그렇게 〈청천장단〉, 〈장소〉까지 김철의 자이니치 3부작이 이어졌다.

차갑고 건조하게, 성숙한 냉정을 향해

실은 우리 젊은 연출가들이 들끓는 에너지를 좀 식히고 식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럴 필요를 정말 강하게 느끼고 있다. 원래 스펙트럼 넓은 연출이 되는 게 꿈이었다. 이와이 순지의 영화 〈릴리 슈슈의 모든 것〉 같은 작

품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그래서 〈쇄골에 천사가 잠들고 있다〉를 만가기도 했고, 이제 숙제를 마쳤으니 차갑고 건조한 걸 해 보려 한다.

변영진과 불의전차가 만드는 차가운 연극이라니.

올해 연말에는 중국계 미국인이 쓴 작품을 하게 됐다. 청년 여섯 명이 모여 마라톤을 뛰어야 한다고 한 늙은 아저씨를 설득한다. 한 남자의 신체를 이식받은 사람들이 그의 꿈을 이뤄주려 노력하는 이야기, 그야말로 ‘요즘 연극’이다.

이제 ‘자이니치 연극’이라는 숙제는 정말 끝낸 건가.

사실은, 아직 끝판왕이 하나 남았다. 제일동포 양석일 작가의 〈피와 뼈〉를 하고 싶다. 최양일 감독의 영화²⁰⁰⁵도 있는데, 3부작 원작 소설의 3부 내용이다. 그런데 1·2부가 정말… 이 소설은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걸 국립극장에서 등장인물 50명 정도 나오는 5시간 짜리 연극으로 올리고 싶다. 그 구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배우 숫자와 러닝타임 계산까지 다 해봤다니.

책을 읽으면서 그냥 계산되더라, 하하. 〈피와 뼈〉는 마냥 뜨겁진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자이니치 연극이 필박받는 피해자를 그렸다면, 이제 실제 일본 사회에서 제일동포의 위치, 일부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 냉정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싶다. 번역과 윤색은 김철의 형이 기꺼이 맡아 줬다. 음악은 꼭 김수철 선생님께 맡기고 싶다, 하하.

불을 뿜으며 질주하던 전차가 이제 차가운 이성의 레일 위를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뜨거움을 제어할 줄 아는 성숙한 냉정함을 장착하고, 변영진과 불의전차는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다.

동네 거리에서 만든 관계의 지도

A Map of Relationships Drawn on Neighborhood Streets

이훈길 건축사, 『사소한 도시의 발견』 저자
Hoongill Lee Architect, Author of *Discovering the Trivial City*

도시는 흔히 거대한 인프라와 경제 시스템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시는 결국 거리의 풍경으로 경험된다. 동네 거리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관계가 형성되고 축적되는 생활 네트워크다. 우리는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모퉁이를 돌아서며 반복적인 동선을 만든다. 이 반복은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촘촘하게 짜는 과정이다. 동네의 거리 풍경은 결국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아침의 거리는 하루의 리듬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장면이다. 출근길에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부모, 문을 여는 상점 주인의 분주한 움직임이 한꺼번에 겹친다. 서로 말을 건네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치는 경험은 묘한 친숙함을 만든다. 이름을 알지 못해도 얼굴을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은 익명의 도시 속에서 작은 안정감을 형성한다. 낮선 도시에서 느끼는 불안이 '아는 얼굴' 하나로 완화되는 경험은, 거리라는 공간이 관계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점심 무렵의 거리는 또 다른 관계의 층위를 드러낸다. 골목의 식당과 카페는 단순히 음식을 소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상의 대화를 생산하는 장소가 된다. 단골과 주인이 나누는 짧은 인사, 계산대 앞에서 오가는 사소한 농담, 자주 보던 손님이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작은 궁금증은 모두 관계의 징후다. 이처럼 거리의 상업 공간은 거래 장소를 넘어 '반복적 접촉의 장소'로 작동한다. 도시에서 공동체가 약화됐다고 말하지만, 사실 관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동네 거리의 틈사이로 이동한 것이다.

저녁이 되면 거리는 또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 퇴근 후 느슨해진 걸음,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 골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While cities are often explained through massive infrastructure and economic systems, the actual experience of living in one ultimately comes down to the scenery of its streets. A neighborhood street is not just a path for movement; it is a living network where relationships are formed and accumulated. Every day, we walk the same paths and turn the same corners, creating repetitive routines. Though this repetition may seem like an unconscious habit, it is in fact a process that tightly weaves invisible networks of connection among the people living in the



city. Ultimately, the streetscape of a neighborhood raises the question: "How do people perceive and remember one another?"

The street in the morning is the first scene to reveal the rhythm of the day. People rushing on their way to work, parents holding hands with children heading to kindergarten, and the busy movements of shop owners opening their doors—all these overlap at once. Even without exchanging words, repeatedly crossing paths at the same time and place creates a strange familiarity. We begin to recognize faces even if we never learn their names, and that recognition offers a small sense of reassurance in the anonymity of the city. The experience of having the anxiety of an unfamiliar city eased by a single "familiar face" shows that the space of the street serves as the very foundation of relationships.

Around lunchtime, the street reveals another layer of relationships. Alleyway restaurants and cafés become places that generate everyday conversations, rather than just spots for consuming food. A brief greeting between a regular and an owner, casual banter exchanged at the counter, or a slight curiosity when a familiar customer does not show up are all signs of relationships. In this way, commercial spaces on the street operate beyond mere transaction points, functioning as "places of repeated contact." It is often said that community has weakened in cities, but in truth, relationships haven't disappeared; they have simply changed form and shifted into the gaps of neighborhood streets.

As evening falls, the street takes on yet another expression. Relaxed steps after work, long shadows stretching under streetlights, and the sound of laughter drifting from alleys create an atmosphere distinct from daytime tension. If the day emphasizes function and efficiency, the evening transforms the street into a time for lingering and leisure. People sit on benches to rest, chat in front of convenience stores, and wind down their day at the edge of a park. The street scenery during these hours fosters a sense of "co-existing." Even without direct relationships, the simple fact of sharing the same space allows the city to maintain the form of a loose community.

What matters most on a neighborhood street is the "difference in speed." When people moving quickly and those lingering slowly co-exist, the street becomes a venue where diverse relationships intersect. If everyone moved at the same pace, the street would become a mere passageway. However, someone stops to take a phone call, someone else



는 낮 동안의 긴장과는 다른 정서를 만들어낸다. 낮에는 기능과 효율이 강조됐다면, 저녁의 거리는 체류와 여유의 시간으로 전환한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편의점 앞에서 대화를 나누며, 공원 가장자리에서 하루를 정리한다. 이 시간의 거리 풍경은 '함께 존재한다'는 감각을 만들어낸다.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도시는 느슨한 공동체의 형태를 유지한다.

동네의 거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속도의 차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과 느리게 머무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할 때, 거리는 다양한 관계가 교차하는 장이 된다. 만약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면 거리는 단순한 통로가 되고 만다. 하지만 누군가는 멈춰 서서 전화받고, 누군가는 진열된 상품을 바라보며 걸음을 늦추고, 누군가는 강아지와 산책을 하며 천천히 이동한다. 이 서로 다른 속도가 겹칠 때 우연한 시선 교환과 짧은 인사가 가능해진다. 관계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 속도의 차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거리의 물리적 구성 역시 관계 형성에 깊이 관여한다. 좁은 골목은 사람들을 서로 가깝게 만들고, 넓은 보도는 다양한 활동을 수용한다. 작은 가게의 열린 문은 안과 밖의 경계를 완화하며, 길가에 놓인 의자는 잠시 머무를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소는 모두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거리의 형태와 디테일은 인간관계의 밀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동네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거대한 도시 구조 속에서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광역 이동망과 거대한 건물들은 도시의 기능을 드러내지만, 관계는 훨씬 작은 스케일에서 체감된다. 매일 걷는 몇 개의 블록, 자주 들르는 가게,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이 도시 생활의 정서적 기반이 된다.

slows down to look at displayed goods, and another moves slowly while walking a dog. When these differing speeds overlap, accidental eye contact and brief greetings become possible. Relationships are naturally born out of these differences in speed, rather than being intentionally manufactured.

The physical configuration of the street also deeply influences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Narrow alleys bring people closer together, while wide sidewalks accommodate various activities. Open doors of small shops soften the boundary between inside and outside, and chairs placed along the roadside provide an excuse to linger for a while. All of these elements extend the time people linger and increase the likelihood of chance encounters. Ultimately, the forms and details of a street act as devices that regulate the density of human relationships.

The reason neighborhood streets are so crucial in a metropolis like Seoul is that they offer spaces of a scale that individuals can actually feel within a massive urban structure. While regional transportation networks and gigantic buildings showcase the city's functionality, relationships are felt at a much smaller scale. The few blocks walked daily, the frequently visited shops, and the people repeatedly encountered become the emotional foundation of urban life. The experiences within this small radius aggregate to form the sense of "living in a city."

Mullae-dong is a prime example that concretely demonstrates this formation of street relationships. The alleys of Mullae-dong create a unique landscape where metal workshops, studios, cafés, and exhibition spaces intermingle. During the day, the sounds of refining metal and the busy

이 작은 반경의 경험이 모여 '도시에 산다'는 감각을 형성한다.

이러한 거리의 관계 형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문래동이다. 문래동의 골목은 철공소와 작업실, 카페와 전시 공간이 서로 뒤섞여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낮에는 금속을 다듬는 소리와 작업장의 분주한 움직임이 거리를 채우고, 오후가 되면 예술가와 방문객이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공간을 점유한다. 서로 다른 직업과 생활 리듬이 한 거리에서 겹치면서, 이곳의 보행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체류 시간은 길어진다.

문래동의 거리에서는 '머무름'이 관계를 만든다. 철공소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작업을 바라보는 방문객, 골목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벽화와 간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러한 체류는 우연한 대화를 만들어내고, 공간에 대한 공동의 경험을 축적한다. 낮선 방문객조차 몇 번의 방문을 통해 골목의 구조와 가게의 위치를 기억하게 되고, 이 기억은 장소에 대한 친숙함으로 이어진다.

특히 문래동의 좁은 골목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교차시킨다. 차량 중심의 넓은 도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가까운 거리의 시선'이 이곳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철공소 직원과 예술가가 같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공연이 열리는 밤에는 주민과 방문객이 같은 거리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한다. 이처럼 문래동의 거리 풍경은 도시 속에서 이질적인 집단이 공존하며 느슨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동네의 거리 풍경은 관계의 지도와 같다. 누가 어디에서 머무르고, 어떤 속도로 이동하며, 어떤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지가 축적되면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지형이 만들어진다. 이 지형은 공식적인 공동체나 제도로 설명되지 않지만, 도시 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사람들은 거대한 도시 속에서 익명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동네의 거리에서는 서로의 존재를 은근히 확인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종종 도시를 효율과 생산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거리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바라보면, 도시는 기능적 시스템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 축적되는 환경임을 알 수 있다. 도시에서 관계는 계획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동선 속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인식과 익숙함이 도시 생활의 관계를 결정한다. 속도가 아니라 체류가, 효율이 아니라 경험이 도시의 지속성을 만든다. 동네의 거리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며, 서울을 살아가는 이들의 관계를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다.

movements of workshops fill the street. In the afternoon, artists and visitors slowly walk the alleys, occupying the space. As different occupations and daily rhythms overlap on the same street, the walking speed here naturally slows down, and the time spent lingering grows longer.

In the streets of Mullae-dong, "lingering" creates relationships. Visitors pause in front of metal workshops to watch the work, people spend time sitting in alley cafés, and scenes of taking photos against backdrops of murals and signs repeat. These moments of staying lead to chance conversations and the accumulation of shared experiences of place. Even unfamiliar visitors come to remember the layout of the alleys and the locations of shops after a few visits, and this memory translates into a familiarity with the place.

In particular, the narrow alleys of Mullae-dong naturally cause the gazes of different people to intersect. "Close-range gazes," which are difficult to experience on wide, car-centric roads, occur routinely here. Metalworkers and artists eat lunch at the same restaurants, and on nights when performances are held, residents and visitors share the same street, recognizing each other's presence. As such, the street scenery of Mullae-dong illustrates how diverse groups can co-exist in the city and form loose but meaningful relationships.

Ultimately, the scenery of neighborhood streets is like a map of relationships. The accumulation of who stays where, at what speed they move, and in which places they repeatedly meet creates an invisible social topography. Although this topography cannot be explained by official communities or institutions, it is a vital foundation that makes urban life sustainable. People live anonymously within the vast city, yet on neighborhood streets, they quietly acknowledge one another's existence.

We often try to understand cities through the lens of efficiency and productivity. However, looking at the relationships formed on the streets reveals that a city is not a functional system, but an environment where emotions and memories accumulate. Relationships in a city are not created by design. The small recognitions and familiarities built within daily, repetitive routines determine the relationships of urban life. Lingering rather than speed, and experience rather than efficiency, create the sustainability of a city. In this way, neighborhood streets adjust the distance between people and quietly continue to shape the relationships of those who live in Seoul.

대학로, 큰 즐거움^樂이 있는 곳

‘당신은 대학로에 관한 추억이 있나요?’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 특별한 장면으로 간직하고 있을 그곳,
단순히 공연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예술과 일상이 만나 기억을 만들어주는 대학로가 우리 곁으로 새롭게 다가온다.

F
FOCUS +
시간

대학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이름, 대-락^樂로 DaeROCK-Ro: A Name That Reawakens Our Memories of Daehak-Ro

박은지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정책팀
Eunji Park | Daehakro Performing Arts Policy Team, SFAC



2005년 서울연극센터 공간 개방
축제 <연극-하기와 보기>
2005 Seoul Theater Center
Open House Festival:
Experiencing "Theater:
Performing and Watching"

대학로를 떠올리면 누구나 비슷한 장면이 먼저 스친다. 공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골목을 서성거리던 사람들, 막이 내린 뒤에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관객들, 카페와 식당 사이를 오가며 공연의 한 장면을 떠올리던 밤의 공기다. 누군가에게는 생애 첫 공연의 설렘이 시작된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무대 위에서 실패의 아픔과 환호의 기쁨을 동시에 경험한 삶의 터전이었다. 또 다른 이에게는 친구와 연인·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시간이 쌓인

When people think of Daehak-ro, a similar scene comes to mind first. People lingering in the alleys an hour before a show starts, audience members staying and talking even after the curtains fall, and the night air carrying memories of a scene from the play as people move between cafés and restaurants. For some, it was where the excitement of their very first show began. For others, it was where they experienced both the pain of failure and the joy of applause on stage. And for many, it is a place where special memories with friends, loved ones, and family have accumulated over time.

The true charm of Daehak-ro does not begin the moment you open the theater door and step inside. The anticipation while walking through the alleys before a show, the lingering afterglow that makes it hard to leave afterward, and the moment of decision while pondering in front of the next show's poster—all of these make up the scenery of Daehak-ro. It is the warmth of breathing in sync with the actors in a small theater and the emotional resonance that remains long after leaving the theater. That is precisely why we loved Daehak-ro.

Today, however, Daehak-ro wears a somewhat different face. Performances continue, and countless audiences



공간이다. 대학로의 진짜 매력은 공연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아니다. 공연을 보기 전 골목을 걷던 기대감, 공연이 끝난 뒤 쉽게 돌아가지 못하던 여운, 다음 공연 포스터 앞에서 고민하던 선택의 순간까지가 모두 대학로의 풍경이다. 좁은 객석에서 배우와 숨을 같이 하며 느끼던 뜨거운 공기, 극장을 나서도 쉽게 가지지 않는 감정의 결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학로를 사랑한 이유다.

그런데 지금 대학로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공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수많은 관객이 찾아오지만, 공연이 끝난 뒤의 시간은 예전보다 확연히 짧아졌다. 관객들은 정시에 맞춰 도착하고, 커튼콜이 끝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빠르게 흩어진다. 극장 안에서는 화려한 경험이 펼쳐지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경험은 급격히 식는다. 대학로는 여전히 ‘공연을 보는 곳’이라는 명성을 유지하지만, 공연을 둘러싼 시간과 감정, 머

still visit, but the time spent after a show has become noticeably shorter. People arrive just on time, and once the curtain call ends, they disperse almost as if by prior arrangement. Spectacular experiences unfold inside the theater, yet the moment audiences step outside, those experiences cool rapidly. Daehak-ro still retains its reputation as a “place to watch performances,” but the time, emotions, and lingering atmosphere surrounding those performances are gradually fading.

While other areas of Seoul change rapidly to create their own new identities, Daehak-ro is considering how to reinterpret its unique memories and sensibilities in the language of today. Beyond its reputation as a district filled with shows, can it once again be remembered as a cultural destination where people want to linger, just like in the past? This very question is where the campaign “DaeROCK-ro: The Street of Great Joy” began.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야외 공간에서 펼쳐진 공연
A performance stage presented
in the outdoor space of the SFAC
DaeHakro Center

무름의 풍경은 점점 열리고 있다. 서울의 다른 지역이 빠르게 변화하며 각자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동안, 대학로는 그만의 고유한 기억과 감각을 어떻게 오늘의 언어로 다시 보여줄 것 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공연이 많은 거리라는 명성 너머, 예전처럼 오래 머무르고 싶은 문화의 공간으로 다시 기억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 시도가 ‘큰 즐거움이 있는 길, 대-락쵸’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거리

대-락쵸는 대학로에서 시작한 이름이지만, ‘대학로’로 불리는 지리적 경계에 갇히지 않으려 한다. 대학로를 중심으로 주변 골목과 공간, 공연의 결까지 함께 바라보며 더 넓은 문화의 흐름으로 이어가려는 시도다. 서울문화재단이 먼저 길을 열지만, 이 거리를 걷는 시민과 공연을 만드는 예술가, 공간을 지키는 상인, 일상에서 이 풍경을 경험하는 모두가 함께 채워가는 과정이다.

대학로의 본질은 단순히 공연이 많은 곳이라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작은 극장이 뻐뻐하게 들어선 골목, 오래된 간판과 포스터로 뒤덮인 거리,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밤의 풍경까지. 대학로는 공연을 둘러싼 삶의 장면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이었다. 대-락쵸는 바로 그 기억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꺼내본다. 공연이 어떻게 일상에 스며드는지, 거리의 분위기가 어떻게 기억으로 남는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연결의 순간들이 이곳을 살리고, 대학로는 다시 살아 있는 문화 공간이 된다.

‘대-락쵸’라는 이름은 그 방향을 담고 있다. ‘대’는 규모가 아니라 오래 남는 경험의 깊이를 뜻한다. ‘락’은 일시적인 흥겨움이 아니라 공연을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기쁨이다. ‘쵸’는 그 기쁨이 머무는 길이자 사람과 시간을 잇는 경로다. 결국 공연이 시작되고 끝나는 극장 안을 넘어, 그 전후의 시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이름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이 흐름을 구체화할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첫째는 ‘체철연극’. 각 과일이 가장 맛있는

The Street We Loved

Although DaeROCK-ro began as a name rooted in Daehak-ro, it aims not to be confined within the geographic boundaries of “Daehak-ro.” Centered on Daehak-ro, it extends to the surrounding alleyways, spaces, and artistic textures, aiming to connect to a broader cultural current.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may take the first step, but this initiative will be shaped by everyone: citizens who walk these streets, artists who create performances, merchants who sustain local spaces, and all those who experience this landscape in their daily lives.

The essence of Daehak-ro cannot be explained simply by the fact that it has many shows. From the alleys packed with small theaters, streets covered in old signs and posters, to the night scenery bustling with people waiting for a show, Daehak-ro has been a space where the scenes of life surrounding performance breathe together. DaeROCK-ro seeks to bring those memories back into today’s sensibilities. How performance seeps into daily life, how the atmosphere of a street becomes a lasting memory. Rather than grand changes, it is the small moments of connection that revitalize this place and restore Daehak-ro as a living cultural district.

The name “DaeROCK-ro” embodies this vision. “Dae (Great)” represents not scale, but the depth of a long-lasting experience. “ROCK (Joy)” signifies not fleeting excitement, but the joy that takes root in our hearts through performance. “Ro (Street)” is the road where that joy lingers, connecting people and time. Ultimately, it is a name that binds the time before and after a show into a single flow, extending beyond the inside of the theater where a performance begins and ends.

In the second half of 2026, a series of programs will bring this vision to life. The first is “Seasonal Theater.” Just as every fruit has its peak season when it tastes best,

제철이 있듯, 연극에도 관객과 가장 뜨겁게 만나야 할 골든타임이 있다. 대부분 공연은 정해진 기간만 무대에 오른다. 즉, 그 작품이 공연되는 바로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신선하고 귀한 ‘제철 예술’인 셈이다.

‘제철연극’은 이처럼 놓치면 아까운 공연을 개막하기 전부터 미리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 프리뷰 프로그램이다. 공연장에 가기 전, 대학로의 중심에 위치한 서울연극센터에 잠시 들러 당신이 만나게 될 연극의 다양한 예고편을 살펴보자.

둘째는 ‘애프터시어터’. 막이 내려도 당신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다. 많은 관객이 공연 후의 먹먹함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지만, 그 소중한 여운이 지하철 안내 방송 소리에 묻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애프터시어터’는 그 여운을 즐거운 ‘대화’와 ‘머무름’으로 바꾸는 프로그램이다. 공연장 밖으로 나온 당신을 위해, 시원한 맥주 한잔 준비하고 기다리고자 한다. 때로는 연출가가 깜짝 방문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고, 때로는 처음 만난 관객끼리 나만의 결말을 공유하기도 한다. 공연은 무대 위에서 마침표를 찍지만,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 맥주 한잔과 함께 비로소 시작될 테니.

셋째, AI 공연 큐레이션과 ‘극개감별사’. 매일 수십 편의 공연이 막을 올린다. 정보의 바다 속에서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방황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서울연극센터에 마련될 ‘공SPI’(공연 + Stage Pick Index)가 이 고민을 해결해주고자 한다. 단순히 예매 인기 순위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오늘 대학로에 내리는 비의 양, 햇볕의 정도, 특별한 기념일, 그리고 당신의 취향까지 분석한다. 그리고 오늘의 대학로 분위기와 어울리는 공연을 추천해준다. “비 오는 날, 조용히 사색에 잠기고 싶은 당신에게 어울리는 연극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그 거리

‘대-락*로’는 공연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캠페인이 아니다. 이미 대학로를 이는 사람에게는 익숙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처음 찾아온 사람에게

every play has a golden time when it connects most powerfully with its audience. Most shows only stay on stage for a set period. In other words, if you do not catch the piece right now while it is being performed, you will never see it again—making it the freshest and most precious “seasonal art” in the world.

“Seasonal Theater” is a special preview program that allows audiences to enjoy these must-see shows even before they officially open. Before heading to the theater, visitors can stop by the Seoul Theater Center, located in the heart of Daehak-ro, and enjoy a friendly introduction to the performance they are about to see.

The second program is “After Theater.” Even after the curtain falls, your story does not end. Many audience members head straight home carrying the overwhelming emotions of a show, but have you ever felt it was a waste for that precious lingering feeling to vanish in an instant, drowned out by the subway announcements? After Theater transforms that lingering resonance into opportunities for “conversation” and “connection.” For those stepping out of the theater, a cold glass of beer will be waiting. Sometimes a director may drop by unexpectedly to share behind-the-scenes stories. Other times, audience members meeting for the first time may exchange their own interpretations and endings. The performance may conclude on stage, but the real story begins over that first sip.

The third is an AI performance curation and “Theater Character Matchmaker.” Dozens of performances open every day, making it easy to feel overwhelmed by choices and unsure of what one would actually like. The “Gong-SPI (Stage Pick Index for Performing Arts),” to be established at the Seoul Theater Center, aims to solve this dilemma. It won’t simply show rankings by ticket sales. It will analyze factors such as today’s weather in Daehak-ro, the amount of sunshine, special occasions, and your personal preferences. You will then receive a curation



서울연극센터 1층 라운지
공간에서 진행된 낭독 무대
‘리플레이(Re: Play)’
“Re: Play,” a staged reading event
held in the Seoul Theater Center’s
first-floor lounge

는 공연과 거리가 함께 있는 새 인상을 남긴다. 공연을 보기 위해 조금 일찍 도착해 걷는 사람, 공연이 끝난 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 사람, 추천받은 작품을 통해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는 사람.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 때, 대학로와 그 일대는 단순한 공연 집적지가 아니라 공연이 삶의 일부가 되는 문화권으로 변한다. 이처럼 리브랜딩을 통해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대학로와 주변 공간이 지닌 진짜 얼굴을 다시 발견하고자 한다.

대학로는 여전히 공연의 거리다. 다만 이제는 그 말이 조금 더 풍성해져야 한다. 공연을 보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공연을 통해 머무르고 연결되는 곳이라는 점이다. 대-락*로는 시민이 공연을 더 편하게 만나고, 예술가가 작품의 맥락을 더 넓게 펼치고, 거리가 다시 문화의 기억을 품는 일이다. 이를 통해 일상의 작은 장면들이 달라질 때, 대학로는 다시 ‘큰 즐거움이 있는 길’로 기억될 것이다.

like, “For someone who enjoys contemplation like you, we recommend this play, which perfectly matches the mood of a rainy day in Daehak-ro.” Additionally, through the “Theater Character Matchmaker,” a theatrical personality test, you can discover which character in a play resembles you and book tickets for a performance recommended by that character. More than a technological feature, it will serve as a thoughtful bridge connecting art and audiences.

The Street Filled With Our Time

“DaeROCK-ro” is not a campaign designed simply to draw people into theaters. For those already familiar with Daehak-ro, it rekindles cherished memories. For first-time visitors, it leaves a fresh impression of a place where performances and streets coexist. People who arrive a bit early and stroll through the neighborhood, those who linger after a show, and those who discover new tastes through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all contribute to extending their time in this district. As those moments lengthen, Daehak-ro and its surrounding area evolve from a cluster of performance venues into a cultural zone where theater becomes part of everyday life. This rebranding is not about imposing a new identity. It is about rediscovering the authentic character that Daehak-ro and its neighboring spaces have always possessed.

Daehak-ro remains the street of performance. But that phrase must now carry a richer meaning. It is not merely a place to watch a show and leave. It is a place to stay, connect, and be transformed through performance. DaeROCK-ro is about making it easier for citizens to encounter shows, allowing artists to expand the context of their work, and enabling the street to embrace cultural memories once again. When these small, everyday scenes begin to change, Daehak-ro will once again be remembered as “The Street of Great Joy.”

우리 시대 연출가 5인에게 묻는 ‘연극의 질문들’

김아라

❶ 지난 몇 년간 ‘유적지’ 연작을 선보였고 미술관·박물관에 초청받아 퍼포먼스 중심으로 공연했는데, 지난해부터 매력적인 블랙박스에서 관객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작품을 해 볼까 생각했습니다. 때맞춰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제안해주셔서 흔쾌히 수락했지요.

❷ 작품 제목은 ‘더 사운드 오브 맥베스 The Sound of Macbeth’입니다. 영어로 표기를 하게 된 배경은 이 ‘사운드 sound’라는 단어 때문이지요. 맥베스의 그 유명한 독백, “Sound and the fur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소리와 분노라는, ‘맥베스’를 푸는 열쇠 같은 핵심 키워드가 매우 심리적인 표현입니다. ‘부질없는 소리’, ‘헛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부질없는 헛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읊어대는 셰익스피어의 언어적 아이러니는 그간 별 관심사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것을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매우 음악적으로요.

❸ 제게 대학로는 고향이지요. 이곳에서 연극을 시작했어요. 마로니에 공원을 지날 때면 저는 자주 옛날의 제 모습을 봅니다. 벤치에서 졸고 있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던 장면들이요. 내게 재능 있는 많은 이들을 선물로 주셨고 함께 일하게 했으며, 기쁨과 슬픔, 분노와 아쉬움투성이었지만 때로 큰 위로가 돼준 곳이지요. 늘 환하고 빛나는 곳, 제게 대학로는 그래요.

❹ 단순히 ‘왜?’라는 질문이 참 좋지요. 세상은 변치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왜’라는 질문을 버릴 수 없는 질

문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전쟁이나 학살 같은... 이번에 공연할 <더 사운드 오브 맥베스>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이거나 상투적인 해답을 강요하는 질문은 삼가는 게 좋겠지요?

❺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연극은 저에게 유희입니다. 나를 위한 유희고, 나와 함께하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과의 유희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달콤한 케이크 같은 유희지요. 권위주의, 엄숙주의는 딱 질색입니다. 단,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극이라서 늘 비극만 다루게 되네요. 코로나19라는 질병이 휩쓸고 간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젠 인간들이 서로 죽이느라 발광 중이니 말입니다.

<The Sound of Macbeth>

8월 8일부터 13일까지, 대학로극장 퀴드
출연 정동환·김성녀·송용진, 연출 김아라, 무대디자인 박동우,
움직임 디렉터 박호빈

대학로극장 퀴드가 마련한 <퀴드, 연극의 질문들: 진화하는 텍스트>는 연극의 미학적 진화를 이끌어온 거장 5인의 무대를 집약한 프로젝트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레퍼토리의 재공연을 넘어, 거장들이 오랜 시간 축적한 예술적 실천을 바탕으로 오늘날 현대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실험의 장을 마련한다.

- ❶ <퀴드, 연극의 질문들: 진화하는 텍스트>에 함께하게 된 계기
- ❷ 공연할 작품을 말한다면
- ❸ 대학로의 추억과 의미
- ❹ 우리 사회에서 연극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나
- ❺ 당신에게 연극이란





김광보

- ❶ 저는 연극이 동시대와 질문을 주고받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퀴드, 연극의 질문들>은 단순히 작품을 올리는 기획이 아니라 시대와 인간을 함께 바라보려는 시도로 느껴졌습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연극이 끝내 붙잡아야 할 질문들, 그것을 환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❷ 어떤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 좋을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통해, 무대를 통해 오늘의 관객께 어떤 질문을 드릴 수 있을지, 다가오는 9월 <퀴드, 연극의 질문들>을 기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❸ 제게 대학로는 공연을 올리는 공간을 넘어 연극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배우게 한 현장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반복 속에서 결국 남는 것은 무대 기술이 아니라 배우의 존재라는 사실을 체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장치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의 숨, 침묵 그리고 무대 위에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대학로는 익숙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요구하고 지금도 계속 질문을 던지는 현재의 현장입니다.

❹ 연극은 답을 주는 예술이 아니라 질문을 남기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소비하는 시대일수록 연극은 그 속도를 잠시 늦추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기보다 왜 그런 선택에 이르렀는지, 무엇이 그를 흔들었는지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 과정에서 관객이 자신의 삶과 타인의 고통을 함께 응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연극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❺ 처음 연극은 거창한 예술이라기보다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배우 한 사람의 몸과 목소리만으로 관객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더욱 분명해진 것은, 연극이 느린 예술이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감정과 침묵 관계의 흔들림을 끝까지 바라보는 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 질문하는 일. 그것이 지금도 제가 연극을 하는 이유입니다.

김우옥

❶ 이번에 공연할 <혁명의 춤>은 1976년 뉴욕 소호에서 초연한 작품입니다. 가난한 실험극은 비싼 프로시니엄 무대 대신 값싼 공간들을 무대로 삼았지요. 블랙박스 극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관객과 무대를 가깝게 만날 수 있게 해줬지요. 50년이 지난 이 작품을 서울에서 가장 멋진 블랙박스 극장인 퀴드에서 재연하는 것은 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그 소원을 이루게 됐네요.

❷ 연극이라면 이야기, 즉 서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인공이 있고, 인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혁명의 춤>에는 서사도, 주인공도 없습니다. 혁명과 관련된 여덟 개의 찢막한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그 상황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작가도 모르죠. 상황과 인물을 파악해야만 이 연극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적인 접근보다는 장면 속에 반복되는 대사, 배우들이 반복하는 동작, 소리 등 형식(구조)에 주목하기를 권합니다.

❸ 대학로를 거닐다보면 어느 골목에서나 이는 얼굴들과 마주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 연극 하는 선배·동료·후배·제자들이었지요. 문자 그대로 '연극동네'였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혜화역 일대 반경 1킬로미터 안에 160여 개의 크고 작은 극장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100개 넘는 극장이 한곳에 몰려 있는 지역을 본 일이 없는데 말이죠. 그 숫자가 맞다면, 이 동네를 잘 정비해 관광상품으로 만든 뒤 기네스북에 올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❹ 저라면 연극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연극이 내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흥미할 극적 순간들을 제공해준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우니까요.

❺ 연극을 하겠다고 덤벼든 때에 연극은 내게 삶 전체인 듯한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지 오래된 연인의 쓸쓸하면서도 애잔한 추억 같다고나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다시 옛날의 정열을 되찾고 싶달까요.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웃음)

<혁명의 춤>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학로극장 퀴드
연출 김우옥

이성열

❶ 연극의 메카 대학로,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연극의 본질과 의미에 관해 묻고 고민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신박한 기획전에 초대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❷ 저와 극단 백수광부가 참여하는 작품은 <화염>입니다. 레바논 출신 작가 와즈디 무아와드Wajdi Mouawad가 쓴 희곡으로, 레바논 땅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난민과 기독교 민병대 사이의 끝없는 증오와 학살의 아픈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분쟁, 난민, 폭력의 문제를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 왕'의 서사와 절묘하게 엮으며 21세기에 되살아난 신화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0년 드니 빌뇌브Denis Villeneuve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돼 2011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부문에 지명됐고,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관객에게는 영화 <그을린 사랑>으로 소개돼 큰 주목을 받았고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끝없는 증오와 혐오의 사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작품을 선보입니다.

❸ 대학로는 연극인의 꿈터이자 일터이자 놀이터입니다. 대학로는 시민이 맛있게 먹을 문화의 빵을 굽는 문화빵굽터이고요. 대학로에서 포스터를 붙이다 죽걸을 네 번 받았고, 술한 밤을 술에 취해 공원과 극장 그리고 빈집에서 잠을 잤고, 사랑하는 멋진 사람들과 만나고 설레고, 그러다 죽는 모습들도 보는... 대학로는 제게 그런 곳입니다.

❹ 연극은 인간과 사회를 되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사회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니 연극도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하는 존재와 의미를 계속 추적하고 그려내는 것이 바로 연극의 할 일이겠지요.

❺ 태어나서 하고 싶은 유일한 일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방황하던 추운 겨울날, 손에 쥐어진 소주병의 차고 단단한 느낌, 그 확실한 느낌으로 살고 싶었고, 무대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느낌을 위해 무대로 향합니다.

<화염>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학로극장 퀴드
출연 예수정·황선화·강해진·박완규·정만식 등, 연출 이성열,
무대디자인 이태섭



한태숙

❶ 새삼, 작업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해 퀴드에서 공연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터라 올해 올릴 퀴드에서의 무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❷ <서안화차>는 제가 오래전에 쓴 희곡으로, 제 작품 중에서도 비교적 여러 번 공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세토 연극제와 싱가포르 아트 페스티벌에 초청 공연으로 참가했고, 제 작품 중에서 비교적 관객이 많았던 공연이기도 합니다.

❸ 우습게도 저는, 대학로 초입에만 들어서도 가슴이 울렁입니다. 제가 경험한 대학로의 극장들을 바라보면, 공연한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함께한 배우들이며 스태프들을 보고 싶어 하기도 하지요.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과 대극장, 동숭아트센터... 가족을 잃은 뒤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기쁨에 죄의식이 느껴져 대학로 출입이며 연극을 끊긴 했으나, 대학로는 여전히 연극의 품 안으로 여겨지고 제 유일한 외출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❹ 영화나 음악·미술·무용을 비롯한 모든 장르의 예술에 관한 질문은 우리가 왜 예술을 사랑하는지에 대

한 직접적인 답을 주진 않지만, 우리가 왜 삶을 고민하고 욕망하며 절망하게 되는지 동의를 구하곤 합니다. 때론 그 방법이 너무 거칠거나, 또는 너무 달짝지근하거나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않아?' '그냥 즐기는 것도 벗어나는 거야!' 하는 제안을 하기도 되죠. 연극이 의식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자답해보곤 합니다.

❺ 교육열이 과한 제 어머니 덕이기도 하고 탓이기도 합니다. 손귀한 집에서 딸만 내리 낳은 어머니는, 딸들이나 잘 키우는 것으로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셨는지 특히 제가 매달 학교에서 열리는 글짓기대회에서 수상하기를 바라곤 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거의 매달 시상대에 오르곤 했죠. 국군 장병에게 쓴 편지를 받은 군인이 학교로 찾아와서 당황한 기억도 있는데요. 그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쓴 글인데 다른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떨어진 친구에게 보름달을 보면서 "저 둥근달을 따다가 주렁주렁 엮어서 내 사랑 목에 걸어주고파"라고 연애 시 같은 것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쓴 글을 엄마에게 들켜서, 울면서 변명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호남정유에서 영어 속기사로 일하던 언니 덕에 건달 생활을 유지하는 중에 드라마센터에서 올린 공연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생일파티>로 기억합니다. 유덕형 선생님 연출이었죠. 쇼킹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공연이었어요. '이게 뭐가?' 싶어서, 세 번을 봤습니다. 어떤 공연은 극장 문을 나서서 혼자 돌아가고 싶은가 하면, 또 그 반대의 기분을 느끼게도 하죠. 어떤 작업자는 세월이 갈수록 그립고, 또한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부디 이번에 퀴드에서 공연되는 다섯 편 작품이 다시 보고 싶은, 인상 깊은 공연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서안화차>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대학로극장 퀴드
연출 한태숙, 무대디자인 이태섭, 조명디자인 김창기

넓고 작지만, 자꾸 생각나는 곳이 있다 서울형 창작극장 20

노은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정책팀 | 사진 제공 (사) 한국소극장협회

오래된 골목 맛집은 간판도 없고 메뉴판도 허름하다. 그런데 한번 가면 자꾸 생각난다. 대학로 소극장이 딱 그렇다. 계단을 내려가야 나오는 지하 공간, 낮은 조명, 무대와 객석이 숨결로 닿을 듯 가까운 그곳. 처음엔 '여기가 맞나?' 싶지만, 막이 오르는 순간 그 좁은 공간이 오히려 힘이 된다. 배우의 눈빛이 바로 앞에 있고, 그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서울 곳곳에 이런 극장들이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 공간만의 색깔이 있고, 수십 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새로운 작품을 세상에 내보내온 곳들. 신진 예술가가 처음 관객 앞에 서는 무대이자,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처음 숨을 트는 공간이다. 대형 공연장에서서는 볼 수 없는, 날 것의 공연이 살아 숨 쉬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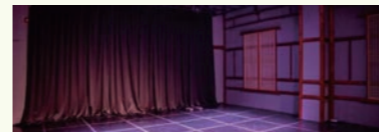
그런데 이 극장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임차료는 오르고, 관객은 더디게 돌아온다. 노포 맛집 주인이 재 룯값을 감당 못 해 문을 닫듯, 공연을 올리고 싶어도 공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버거워진 것이다. 무대가 없 어지면 공연도, 예술가도, 그 공간을 찾던 관객도 함께

사라진다.

'서울형 창작극장'은 이 극장들이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이어온 지원을 올해부터 서울문화재단이 맡아 운영한다. 300석 미만 민간 소극장에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고, 극장은 연극·무용·전통예술 단체에 대관료를 50퍼센트 이상 할인 제공한다. 극장도 살고, 예술단체도 더 가볍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구조다.

올해 선정된 극장은 총 20개. 이곳에서 연간 700여 편 공연이 시민과 만난다. 그 무대 어딘가에서, 훗날 서울을 대표할 누군가의 첫 대사가 오늘 밤 울려 퍼지고 있을지 모른다. 서울문화재단은 더 많은 시민이 이 극장들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학로를 중심으로 리브랜딩 캠페인 '대-락*로'도 함께 펼쳐나간다.

노포 맛집은 맛만 파는 곳이 아니다. 그 공간의 시간과 사람이 쌓여 특별해진다. 대학로의 작은 극장들도 그렇다. 넓고 허름해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곳. 아직 경험해본 적 없다면, 한번 그 계단을 내려가보는 건 어떨까.



1 강북솔밭국악당
강북구 삼양로 579



2 우무지
마포구 독막로8길 7



3 포스트극장
마포구 와우산로 148



4 극장 봄
성북구 삼선교로 14
5 놀터예술공방
성북구 성북로2길 21



6 뜻밖의극장
성북구 동소문로20나길 27



7 창작플랫폼 경험과 상상
영등포구 선유동2로 46



8 보광극장
용산구 장문로19길 4



9 경복궁아트홀
종로구 자하문로 82
10 극장 동국
종로구 창경궁로 259



11 드림시어터
종로구 대학로10길 15-11
12 미래아트홀
종로구 창경궁로35길 26



13 북극곰소극장
종로구 이화정길 24
14 소극장공유
종로구 창경궁로 303



15 소극장혜화당
종로구 대학로12길 63
16 스카이씨어터
종로구 대학로8가길 52



17 안뜰체육극장
종로구 성균관로3길 23
18 열린극장
종로구 창경궁로 258-12
19 플랫폼74
종로구 동숭길 74
20 R&J씨어터
종로구 낙산길 14

인간다움의 본질로서 예술, 서울문화예술교육 3.0 kickoff 세미나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지난 5월 22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서울문화예술교육 3.0 kickoff 세미나가 열렸다. '기술시대 시민 주도 도시문화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서울문화재단, 서울시재단, 카이스트, 암스테르담 문화국, 도쿄역사문화재단이 함께한 이 자리에 문화에서 AI까지 다채로운 이야기의 판이 펼쳐졌다.

암스테르담과 서울, 문화와 기술의 정책이 교차할 때
첫 번째 세션 '정책: 도시×문화×AI'는 문화와 기술 분야의 정책 주체가 함께 그려야 할 도시의 미래 비전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아라프 아마달리Araf Ahmadali 암스테르담시 문화예술국장은 '닌야 코스Ninja Kors 암스테르담 예술기금의 정책개발자문위원과 함께 '문화 참여에서 문화 주체성으로From Cultural Participation to Cultural Agency'라는 제목으로 암스테르담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2017년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서울 서밋 이후 약 10년 만에 문화사절단 13명을 이끌고 서울을 다시 찾았다. 글로벌 문화도시로서 암스테르담과 서울이 AI 시대에 함께 인식하는 문화정책의 당면 과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설정한 정책 기조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암스테르담 자이도스트Zuidoost 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암스테르담 예술기본계획 2025-2028'의 실천 사례가 소개됐다. 그는 시민이 단순한 문화 참여자가 아니라 공동 창작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문화 재생산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정책이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주성한 서울시재단 시혁신사업본부장은 '데이터와 AI가 만드는 서울의 시민문화'라는 제목으로, AI 기술과 문화정책이 결합해 삶의 질과 도시의 쾌적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숫자를 세는 것에서 감정을 읽는 것으로"의 전환을 얘기했다. 도시 문화를 획일화하는 빅마더big mother 매체가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취향과 감각을 발견하고 예술가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AI 기술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재단에 상주하는 MIT 센서블 시티랩MIT Senseable City Lab의 '트리피디아Treepedia' 사례처럼,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시민 문화생활의 흐름을 읽고 반영해 좀 더 시민 친화적인 문화도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두 기관이 올해 3월에 디지털-문화-매력도시를 향한 MOU를 체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의 발표는 AI가 문화의 주체로 나서며 도시의 일상과 문화를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도시 정책 주체들이 느끼는 고민과 방향을 보여줬다. 그것은 인간이 주체인 도시문화가 어떻게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이번 세미나의 취지에 조응하는 것이었다.

“기술시대 시민주도 도시문화의 미래”

이어 두 번째 세션 '사례: AI×예술×시민'은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한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사례 발표자로 나선 메이 시마다Mei Shimada 도쿄도역사문화재단 CCBTCivic Creative Base Tokyo 프로그램 디렉터는 '도시는 상상력을 요구한다: 시빅 크리에이티비티와 더 나은 도쿄'라는 제목으로 CCBT의 설립 배경과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CCBT는 기술을 활용한 예술 기획으로 도시에서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꾸는 시민의 창의적 활동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가를 지원하는 '아트 인큐베이션' 외에 '만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인공세포 레시피Make, Think, Talk: Artificial Cell Recipes' 같은 시민 참여형 위

크숍과 캠프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서 지난 4월 서울문화재단과 MOU를 체결한 카이스트 아트앤테크놀로지센터KATEC의 최도요 선임연구원은 '씨네 포레스트: 동화動花'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는 숲이라는 일상 공간이 AI와 영상·사운드·오케스트라·시민 참여가 결합된 퍼포먼스로, 총체적 감각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재구성된 사례였다. 두 사례는 시민의 창조성과 문화적 주체성이 AI 기술의 홍수 속에서 퇴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삶의 공간을 바꾸고 예술 창작에 깊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말해준다. 그것은 '서울문화예술교육 3.0'이 그리는 정책의 역할과 상통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세션 '토론: 예술×기술×정책'은 백선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 전원과 청중을 아우르는 자리로 진행됐다. AI 시대에 지켜야 할 인간다움은 무엇인지, 문화적 주체성에 근거한 시민문화와 예술교육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문화정책부터 AI 기술까지 폭넓은 논의 결과는 서울문화예술교육 3.0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로 종합됐다.

20년간 창의성에서 사회성으로 변화해온 문화예술교육

때마침 올하는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20년 차가 되는 해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2006년 6월 29일 본격적

서울문화예술교육 3.0 kickoff
세미나에 참여한 연사들





↑ 지난 5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진행된 어린이·가족 예술축제 '톡톡'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취타대의 행진 모습

으로 시행(2004년 12월 법안 발의)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해 집행된다. 법 제3조에 "모든 국민의 문화 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고 명시된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원칙에 따라,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창의예술교육AiE: Art in/is Education'에서 '사회 예술교육AiC: Art in/is Community'로 전개됐다. 현재 중앙정부의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은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응하는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은 "시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 향유와 주체적인 참여"(제1차, 2018~2022), "일상 속 어디서나 누리는 예술교육"(제2차, 2023~2027)을 목표로 집행됐다. 서울문화재단은 창립 원년인 2004년부터 청소년 예술 활동 지원으로 예술교육사업을 선도해왔다. 22년이 지난 2026년 현재는 예술교육사업이 시민문화본부 내 5개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체제로 정착했다. 각 센터는 시각예술(양천)·도시 문학(용산)·음악(서초)·전통예술(강북)·무용(은평)이라는 예술 장르별 프로그램 특화 전략을 추구한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모습은 더 이

상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 용어가 떠오르는, '교실' 안에서 '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예술 실기 교습이나 인문학 강의가 아니다. 헤르만 헤세의 음악 에세이를 함께 읽는 어른들의 클래식 음악 감상회부터 어린이들의 취타대 행진, 아이들의 몸짓을 공동 창작의 과정으로 풀어내는 몸놀이 수업, 미술가와 아이들이 함께 교실 모든 벽을 그림으로 채우는 공간 드로잉, 자기 인생 이야기를 노래로 만드는 작곡 클래스까지 다양한 오늘의 현상은 과거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법정 용어에 담겨 있던 모습과는 다르다. '문화예술교육 3.0'을 계획하는 정책가가 기존 언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정책을 적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 시민문화본부로 새롭게 편제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사업의 전략은 '문화행복도시 서울'에서 '예술을 나의 취향으로 깊게 이어주는 서울문화예술교육'으로 설정했다. AI 생성 문화의 홍수 속에서 인간 문화 공동체가 개인의 문화적 주체성 위에서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책 언어 속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그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문화예술교육 3.0을 향한 질문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23~)은 2027년 만료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에 새로 수립할 제3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이 고려할 시대 변화와 철학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바야흐로 AI 문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을 '시작(킵오프)'하는 자리였다. 특히 예술과 AI 기술을 매개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행동 변화를 이끄는 사례와 가능성을 공유하며, 인간적이고도 매력적인 글로벌 문화도시의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것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가르치는 '교육(education)'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에 맞춰 예술 현장을 체험하고 문화창조의 주체로서 깊게 '참여(engagement)'하도록 기회와 환경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향해야 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서울문화예술교육 3.0 킵오프' 세미나를 시작으로, 서울AI재단과 카이스트를 비롯한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업해 담론을 개발하며 이는 2026년 11월 진행될 포럼과 이듬해 3월 발행될 총서로 종합 정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종합된 정책 담론은 제

3차 서울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에 제출되며, 2027년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사업에 먼저 반영될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제3차 서울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28~2033)이 필요한 시점에서, 바야흐로 일상에 스며든 AI 기술이 우리 인간의 사고와 감각, 그리고 문화적 주체성을 퇴화시키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 AI는 인간의 '혼자 생각할 용기'를 퇴화시키며 스스로 문명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온라인 세상에는 AI가 만들어내는 의미 없는 이미지 쓰레기들AI slop이 넘쳐나고, 그것들을 생성하느라 데이터센터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녹아내리고 있다. 이에 반발해 AI 생성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또 다른 인간적 트렌드로 부상했다. 하지만, 프롬프트 놀이에 빠진 인간의 문화 창조력은 '뇌 썩음(Brain rot)'과 함께 도태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처럼 AI 기술이 인간의 문화적 주체성에 미치는 변화를 우려스럽게 파악하며, 이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조망하고자 했다. 스스로 문화를 재창조하는 힘을 잃어버린 시민이 사는 도시가 '매력적인 문화도시'가 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AI 시대에 인간이 기계와 다른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다움의 본질로서 예술AiH: Art is Human'의 가치를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생존을 위해 예술하는 기술을 개발한 '호모 심볼리쿠스(Homo Symbolicus)'를 주장한 루이스 머포드(Lewis Mumford)나 인간의 본성이 예술로 통한다고 '오지(吾知)'를 주장한 공자와 같은 철학자들의 주장이 이를 지지한다. 『느낌의 진화』(안토니오 다마지오 저)와 『지능의 기원』(맥스 베넷 저)을 밝히는 과학자들의 발견도 '몸의 느낌'과 '취향'에 기반한 문화예술 행위를 인간 진화와 문명적 성취의 기원으로 해석한다. 이제 AI와 구별돼야 할 인간의 특성은, 이미 기계에게 추월당한 '뇌로 생각하기'보다 '몸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들고 의미'를 지어내는, 즉 '예술하는 본성'이라고 주장해본다. '서울문화예술교육 3.0'을 향한 걸음은 이런 인간다움에 대한 믿음 위에 내딛고 있다.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Sentio, ergo sum).

나는 예술한다, 고로 인간이다(Artem facio, ergo homo sum).

—인간다움의 본질로서 예술AiH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연자이자 창작자 송창현(넙뚜)입니다. 저는 연희를 중심으로 공연을 만들고 있고, 그중에서도 상모를 주력으로 한 전통 연희의 움직임과 리듬을 지금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공연부터 극장 공연, 밴드 활동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전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즐기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식의 연희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곱 살 때부터 풍물과 연희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상모를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술적으로 잘 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모 안에 있는 움직임과 감정, 에너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창작을 시작하게 된 건 2025년 공연을 준비하면서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왜 상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전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제 감정과 고민을 연희 안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전통 장단과 현대적인 사운드, 상모의 회전과 몸의 움직임을 섞으면서 저만의 언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스스로를 단순 공연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연희를 잘 보여주는 사람, 잘 표현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이 "처음으로 국악이 재밌다고 느꼈다", "이상하게 울컥했다", "상모가 저렇게 멋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이나 기억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공연을 준비하면서 혼자 연습실에 남아 음악과 움직임을 계속 바꾸고 고민하는 시간을 반복하다보니, 결국 예술가는 자기 안의 질문을 끝없이 꺼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스스로를 창작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송창현

b.1996

국악/연희

@namttoo

2026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예술on**] 다시 만나는 소리 (예정)
2026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지원
2025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제 안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는 이어폰도 빼고 조용한 길을 오래 걸곤 하는데요. 그렇게 걷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나 리듬,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상모의 궤적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장단이나 노랫말 한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메모해두었다가 곡을 만들고 움직임을 연결하면서 작업으로 발전시키는 편입니다.

요즘은 웹툰을 정말 자주 봅니다. 특히 옛 우리 문화를 배경으로 하거나 무협지 스타일의 웹툰을 좋아하는데요. 사극풍 안에서 나오는 말투나 캐릭터들의 표현, 공간의 느낌 같은 걸 보면 국악이나 연희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나 움직임, 긴장감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공연 장면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데, 단순 재미를 넘어서 근래의 작업 아이디어에도 은근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지난해 제작한 <REBORN: 전통과 현대의 충돌>이 있습니다. 상모의 소리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고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무대 위에서 풀어낸 공연입니다. 전통 연희의 장단과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대적인 사운드와 퍼포먼스를 결합해 지금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또 퓨전 연희 밴드 '오름새'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밴드 사운드 안에 전통 연희를 녹여내면서 공연장뿐만 아니라 거리와 축제 현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모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소셜미디어 콘텐츠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상모를 어렵고 낯선 전통으로 보여주기보다, 춤이나 음악, 일상의 움직임과 연결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상모의 회전 궤적이나 몸의 흐름 자체를 하나의 움직임 언어처럼 확장하는 작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연희, 그중에서도 상모를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 언어처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아직도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상모를 모르시는 분도 꽤 존재하곤 합니다. 더불어 연희라는 단어조차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낯선 우리 문화로 느끼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전통 연희 안에는 정말 강한 에너지와 리듬, 몸의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니

<REBORN: 전통과 현대의 충돌> 공연 모습

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연뿐 아니라 음악, 영상, 거리예술,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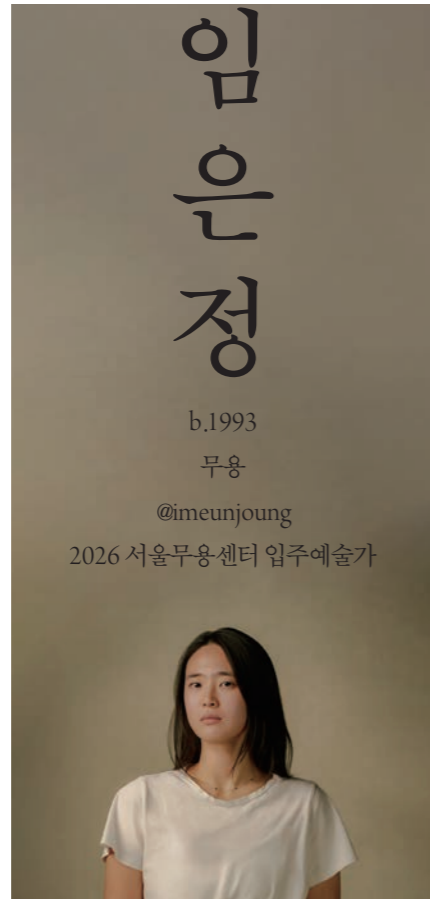
로 상모와 연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상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도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다고 보다는, 제가 만든 움직임과 공연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감각, 새로운 자극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안무가이자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는 임은정은 입이다. 무용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움직임 뿐만 아니라 영상·설치·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신체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강한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몸/퍼포먼스가 사회·정치적 맥락과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주목합니다. 초기에는 신체가 시간과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움직임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를 신체를 통해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고, 이후에는 여전히 신체에 중점을 두면서도 다양한 매체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학부 시절 안무를 배우면서 무용 창작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 그 경험이 지금까지의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맞다 아니다’라는 구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답을 해 보자면, 아직 명확하게 ‘이때다!’ 하고 느낀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저를 예술가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사회·구조적 조건에서 여성의 신체가 하나의 개별적 존재가 아닌 기능이나 가치로 환원된 객체로 다뤄지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는 종종 성적 대상, 재생산의 도구, 혹은 돌봄과 희생의 역할과 연결돼 의미화됩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가 신체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과 시선의 체계를 통해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작업에서는 가부장 사회뿐만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의 신



임은정

b.1993

무용

@imeunjeong

2026 서울무용센터 입주예술가

체가 어떻게 구성돼왔는지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저의 탐구는 여성의 몸에서 출발하지만, 단일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퀴어, 장애, 노동하는 신체 등 사회적 권력 구조 속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다양한 신체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영상 작업 <이모>, <렌즈>가 있으며, 퍼포먼스 작품으로는 <어린광대 그리고 마법사>, <쌀더미>, <숯>이 있습니다.

작품 <이모>는 속초 아바이마을 여성사와 중년 여성의 노동·믿음을 중심으로 만든 작품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여성 무당의 곳을 자주 접했습니다. 아바이마을은 남북 분단과 전쟁 이후 형성된 피난민 공동체로, 바다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많은 남성이 어업을 위해 장기간 바다에 나가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의 노동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의 강도 높은 육체노동과 더불어 남성의 무사 귀환과 생

업의 안정을 기원하는 사머니즘 의례가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저는 여성 무당이 이끄는 곳을 자주 보며, 무당이라는 초월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곳의 전후 과정에 드러나는 여성 노동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곳을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하는 과정, 그리고 칼날 위에서 뛰고 오르는 행위를 보며, 여성 사면의 몸은 단순한 영적 매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돌봄과 노동을 수행하는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몸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몸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저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가려진 젠더화된 노동과 그 신체·심리적 부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노동과 신체가 공존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저는 신체를 단일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다양한 맥락을 지니는 존재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한 가부장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이분화된 기준과 내면화된 정상성,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마주한 한계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

저를 둘러싼 환경과 제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해온 것의 배경에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관심이 큼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 제 몸을 놓아보는 경험 자체가 영감을 얻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새로운 곳에 나를 놓아두고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여행을 통해 여러 도시와 문화권을 경험하고, 무용 페스티벌과 미술 비엔날레 등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앞서 언급한 경험과 더불어 주류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이나 억압적인 구조에 균열을 내는 퀴어·페미니즘적 사유, 그리고 신체의 가능성, 해방을 다룬 예술론과 철학적 텍스트들을 리서치하며 개념에 관해 자극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들을 제 몸의 감각과

단체별 비디오 <이모> 설치 전경

연결하려 노력합니다.

최근 작업에서는 ‘관음적 시선’에 주목하고 있으며, 누가 보고 보이는가에 대한 관계를 전환하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객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보는 자’로 개입시키는 방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움직임뿐 아니라 설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등을 결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몸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신체가 다른 매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새로운 맥락을 생성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탐구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제 작업을 통해 관객에게 각자가 자신의 몸을 둘러싼 사회·역사적 구조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종로를 오늘의 문화로 번역하다

종로문화재단 김승모 대표이사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협력관

가느다란 봄비가 내린 5월의 어느 날, 종로문화재단 김승모 대표이사를 만난 곳은 '무계원'이었다. 종로구 부암동 언덕 아래 자리한 이 한옥은 그 자체로 종로의 시간을 품고 있다. 지금은 사라진 인사동의 요정 '오진암'(조선 말기 서화가 이병직의 가옥) 일부 자재가 이곳에 옮겨와 다시 집의 몸을 이루고 있었다. 오진암은 한때 서울 근현대사의 굵직한 장면과도 연결된 장소다. 사라진 공간의 흔적이 부암동 언덕 위에서 새 이름을 얻은 셈이다. 그는 이 터가 종로의 여러 기억과 맞닿아 있다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옛 기억의 장소를 설명하는 그의 말에는 행정가의 보고보다 동네 사람의 기억이 먼저 묻어났다.

김승모 대표는 종로에서 오래 살았고, 이곳에서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대학교를 제외하고 한평생 이곳에서 일하며 종로의 길과 골목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산증인이다. 그래서 돈화문로 문화보존회 사무총장과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도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 종로는 관리해야 할 행정구역이기 전에, 몸으로 익힌 생활권이자 시간의 층위가 겹겹이 쌓여 밀착된 현장이다. "종로 하면 대개 궁궐, 한옥, 한복 같은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서 들여다보면 훨씬 다양합니다. 서촌에는 독립서점이 많이 생겼고, 젊은 예술가와 생활문화인도 활발히 움직입니다.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종로는 오래됐지만, 사람들은 오래되지 않았습시다." 김 대표가 바라본 종로의 첫 과제는 바로 그 선입견을 걷어내는 일이었다. 종로는 분명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의 지층을 가진 지역이다. 그러나 '오래됐다'는 말이 곧 '박제'를 뜻하는 건 아니다. 그는 종로의 문화가 전통의 보존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시민과 다시 만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존하기 위해 변화한다는 것

김승모 대표가 자주 꺼내는 말은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래됐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며,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하되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야 후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김치를 예로 들었다. 조선 시대에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전 김치와 오늘의 김치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전통문화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화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원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이어집니다. 대장장이가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과정 자체를 보존하는 일도 필요하고, 동시에 오늘의 방식으로 새롭게 보여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둘은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은 재단 사업에도 조금씩 반영됐다.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종로한복축제에서도 전통 복식의 재현에만 머물지 않고, 한복을 소재로 한 캐릭터 전시, 한복 문양을 활용한 작가 작업, 한복을 입은 발레 공연 등 새로운 시도를 더했다. 한복을 궁중 의상이나 전통 의례의 장면에만 가두지 않고, 동시대 무대와 시각예술 안에서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문화보존소'라는 표현을 썼다. 지역문화재단은 대형 병원처럼 완성된 문화만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이 문화의 첫 계단을 밟을 수 있도록 돕는 1차 진료기관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재단이 주민을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단이 먼저 정해서 끌고 가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장을 만들어주고, 모이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면 어느 순간 주민의 입에서 '우리 이런 것 한번 해 봅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역문화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제안한 <어디나 스테이지>도 이와 닿아 있다. 광화문광장이나 마로니에공원처럼 이미 알려진 장소만이 아니라, 골목길과 시장 어귀, 오피스 타운 주변,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 등 일상 속 장소와 시간으로 공연을 가져가는 시도다. 종로의 문화가 특정 장소에 갇히지 않고, 시민의 생활 리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종로형 문화관광에 대한 생각도 분명했다. 종로는 이미 관광객이 넘치는 도시다. 북촌 일대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으로 주민 불편이 커져 방문 시간제한까지 논의될 정도다. 그래서 김 대표는 종로의 문화관광이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불러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더 많이 보게 하는 관광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게 하는 관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찍고 소풍하고 지나가는 관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게원 같은 공간에서 차를 마시고, 붓글씨를 써보고, 매듭을 만들어보고, 한복 바느질을 해 보는 식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손으로 경험



하면 종로가 다르게 남습니다."

**운동주에서 아트버스까지,
종로를 다시 경험하는 방법**

그런 점에서 2025년 운동주문학제 '동주를 그리다'는 종로문화재단이 오래된 문학 자산을 오늘의 예술언어로 다시 번역하려는 시도였다. 운동주 시인 서거 80주기와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 속에서 열린 이 축제는 기존의 시화전과 창작음악제에 더해 미디어 공모전을 새롭게 도입했다. AI를 활용한 작품도 접수됐다. 심사 과정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인정하되 활용 방식을 밝히는 방향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김 대표는 운동주의 '남겨진 시'뿐 아니라 '남기지 못한 시간'에서도 의미를 찾았다.

"운동주 시인이 오래 살았다면 지금처럼 강렬한 상징으로 남았을까요. 그는 단 한 권의 시집을 남기고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대가 상상할 여지가 큼니다. 그가 어떤 시를 더 썼을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여백이 운동주를 계속 새롭게 표현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봅니다."

한편, '종로 아트 버스&투어'는 또 다른 실험이다. 광화문에서 출발해 부암동·평창동·홍지동·서촌을 잇는 이 사업은 단순한 순환버스가 아니다. 평창동과 부암동 일대에는 환기미술관·석파정 서울미술관·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가나아트센터·토탈미술관 같은 주요 시설뿐 아니라 크고 작은 갤러리와 예술가의 작업 공간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접근성은 늘 과제였다.

"좋은 문화 자산이 있어도 가기 어려우면 시민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평창동·부암동에는 알려진 미술관 외에도 작은 갤러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엮어주면 미술 애호가에게도, 처음 방문하는 시민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아트버스가 앞으로 평창·부암동에만 머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운동주문학관의 '동주마실'을 혜화동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로 넓히려는 구상도 있다. 북촌의 갤러리, 대학로 주변의 문학과 공연 자산까지 연결하면, 아트버스는 하나의 노선을 넘어 종로 전체를 다시 읽는 문화관광 모델이 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가이드 해설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해설의 전문성이 충분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대부분 참여자가 예상보다 크게 만족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문화 사업의 완성도만큼이나 문턱을 낮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우리는 자꾸 완성된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판단은 시민이 스스로 하게 하면 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변화가 무엇인지 묻자, 김 대표는 거창한 목표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종로 문화재단의 존재를 알리는 일"이라고 간명하게 답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종로문화재단이 뭐 하는 곳이야"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을 재단의 홍보대사로 정했다.

"문화예술인은 재단을 압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종로문화재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무엇을 해내겠다는 것보다, 앞으로 가야 할 흐름을 잡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그는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광역문화재단은 광역의 자원과 기획력을 갖고 있고, 기초문화재단은 주민과 가까운 접점을 이루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좋은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함께 공유하는 일이다.

인터뷰 말미에 이르러 그에게 종로문화재단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종로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앞으로 어떤 K-컬처로 표현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무계원 마당에는 봄의 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사라진 공간의 자재로 다시 지어진 집에서, 오래된 종로의 미래를 묻는 대화가 이어졌다. 종로는 오래됐지만 멈춰 있지 않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존하고, 누군가는 다시 바꿔 보여준다. 김승모 대표가 말한 종로문화재단의 일은 그 사이에 있다. 종로의 시간을 오늘의 시민 경험으로 번역하는 일, 그것이 지금 종로문화재단이 붙들고 있는 가장 오래된, 동시에 가장 새로운 과제다.

“데이터에 말을 걸 때”

조소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팀장

박채림 [문화+서울] 에디터 | 사진 Studio Kenn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연정보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신지요. 공연정보팀은 공연 분야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통계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을 운영하며 공연 일정, 예매·판매 현황 등 공연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연예술조사 등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시장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연 분야에 이처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가 드물기에 현장과 정책·연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공연정보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전에는 시각정보팀에서 미술 분야 정보 수집과 시스템 운영을 담당했는데요. 돌이켜보면 공연과 미술이라는 분야는 달랐지만, 예술 현장의 정보를 체계화해 공공 데이터로 만들고 현장과 정책에 연결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몸담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국책 연구기관에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다 우연히 예술 분야 조사·연구 담당자로 센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입사 후 처음 맡은 업무가 공연예술조사였지요. 지금 공연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니, 약 10년 만에 첫 업무와 다시 만난 셈입니다. 당시만 해도 예술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논의는 지금보다 훨씬 낫설었습니다. 제가 이 직무에 매력을 느낀 이유도 그 지점이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쌓은 조사·분석 경험을 예술 분야에 접목해 기초자료를 만들고, 그것이 현장과 정책의 판단 근거가 되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에 의미를 느꼈습니다. 예술의 가치를 숫자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현장을 두루 경험하며 바라본 예술 시장은 어떻게 같고 또 다른가요. ‘예술시장’이라는 범주에 있지만 두 분야의 작동 방식은 꽤 다릅니다. 다만, 예술의 가치는 거래 금액이나 관객 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쉽게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작·향유·유통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영역입니다.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공연예술은 특정 공간에서

관객과 만나는 ‘경험재’ 성격이 강해 공연 기간, 좌석 수, 예매율 같은 시간 단위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반면 시각 예술은 제작부터 전시, 유통, 소장, 재판매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작품이 소유·이전되는 방식 자체가 시장 구조를 형성합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라도 어떤 맥락에서 해석할지가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장을 보면 최근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장르 간 경계가 흐려지고 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사례가 늘면서 기존 분류 체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일정한 카테고리리로 분류하고 비교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술 현장은 그 기준을 끊임 없이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예술시장의 변화를 체감한 경험이 있다면요. 2008년 미술시장 조사가 시작된 이후 국내 미술시장은 성장과 침체를 반복해왔습니다. 그 흐름 아래 시각정보팀에 근무할 당시 키아프KIAF와 프리즈FRIEZE 서울이 공동 개최됐습니다. 국내 미술시장 확대가 정점에 이르던 시기였지요. 실제로 관람객 증가, 새로운 소비층 유입, 소셜미디어 확산 등 여러 변화가 동시에 나타났고, 시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상 깊은 점은 이후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든 뒤에도 관람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래는 줄더라도 미술에 대한 관심과 향유는 계속된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단기 유행을 넘어 소비 기반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었고요. 현재 시장을 조정기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지만, 국제적 관심과 초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 국내 미술시장의 체질이 점차 단단해지고 있다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시기가 미술시장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술시장만의 특성이라면 무엇일까요. 예술시장 데이터를 볼 때 가장 경계하는 건, 숫자를 단순한 증가와 감소로만 해석하는 일입니다. 거래액이 줄었다고 관심이 식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람객이 늘었다고 곧바로 구매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숫자는 현상을 보여주지만, 그 이유와 맥락은 별

도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데이터에 말을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 당시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을 던지다보면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 과정이 데이터 분석의 핵심이자 예술시장 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시장에서 데이터의 ‘진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데이터를 단순히 유통이나 홍보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역할은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가시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현장에는 이미 관계자들이 감지하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관객층이 달라졌다’, ‘특정 장르 관심이 늘었다’ 같은 감각이죠. 데이터는 이런 경험을 객관적인 근거로 바꾸고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현장에서조차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흐름을 발견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을 읽기 위해 특히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있다면요. 공연과 전시처럼 장르 특성이 뚜렷한 예술시장을 하나의 지표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작 방식과 유통 구조, 향유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수치보다 장르별 맥락 속에서 관객 행동, 소비 패턴, 유입 경로, 예매·거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생산하는 장르별 보고서와 리포트, 관련 시스템을 함께 참고하면 좀 더 입체적으로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의 향후 계획과 개인적인 바람이 궁금합니다. 지금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공연정보팀 데이터와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가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술 분야 데이터는 현장을 설명하고 정책을 설계할 때 판단을 돕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단순한 통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자료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에 나서기보다 현장과 정책 사이에서 필요한 근거를 잘 연결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